

경주캠 자치기능 강화된다

본관·자연관 등 대규모 신·증축 오늘 비구수행관 석림원 기공식

비구 수행관 '석림원' 기공식이 오후 2시 금장생활관 복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원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이번행사는 △삼귀의례 △특경·축원=정각원장 △석림원 건립 추진경과 보고 △이사장 치사 △총장식사 △불교계 축사=조계종 교육원장, 불국사 주지, 경주시장 △사홍서원 △다과회 순으로 진행된다.

연면적 3백 66평 규모에 지하 1층·지상 3층의 기와지붕으로 건립될 석림원의 총 공사금액은 10억 6천만원이며, 선택종합건설에 시공을 맡겨 금년 12말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내부구조는 인법당, 객실 23실, 교수실 2실, 사감실 1실, 석림회 사무실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이번 비구 수행관 건립을 위해 석림회는 97년 1월부터 종단 및 국내 사찰을 통해 모금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2년여간 마련된 모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2억 9천여만원이다. 석림회측은 "모금 활동을 2년간 해오면서 종단과 학교측, 여러 스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결과 무사히 기공식을 가지게 돼 만족스럽다"고 기공식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올해 경주캠퍼스에는 △자연과학관 △영산관 △미술학부 조소실 등이 증축될 계획이다.

자연관은 2백 40여평에 강의실 5실, 연구실 3실 등(예산 5억원), 영산관은 현재 4층에서 한층 더 높은 3백 50평 규모(예산 5억원), 미술학부 조소실은 2층 규모로 4백여평(예산 7억원)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99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따라 건축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내리건 석림원 건립을 비롯하여 여러 건물의 증축결정은 경주캠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덧붙여 과포화상태인 진흥관 문제, 박물관 건립 문제 등도 학교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장희정 기자 dg19711782@dongguk.ac.kr



올해 12월 설계완료 예정인 경주캠 대학본부의 부분투시도. 왼내는 교무위원 회의실.

지면안내

- ▶ **점이란 무엇인가** 6~7면
- ▶ **서울캠 총학, 학자 10개 요구안 제출 2면**
- ▶ **'공기업 민영화', 그 바람직한 방향은? 5면**
- ▶ **출소후 변화된 박노해씨세계 알아보기 11면**
- ▶ **동국발전이 곧 영화발전! 12면**

보리수

인욕행(忍辱行)

정성본 (불교문화대 불교학부 교수)

사바(Saha)라는 말은 모든 중생이 불인과 근심·걱정 등 괴로움(苦)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라는 말이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은 이러한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인토(忍土)라고 번역하고 있다.

"돈오묘론"에서 인욕의 실천은 불도(佛道)를 닦는 첫 번째 수행이다. 인욕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아의식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비난과 욕설이 있을지라도 이를 자신이 받아들이는 일이 없게 된다. 자아의식의 마음을 텅 비워 버렸기에 그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비난과 욕설에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리 욕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심하게 내버려 두면 자기 마음의 동요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음부경전"에도 부처님을 향해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바리문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당신의 집에 친척이나 손님이 옵니까?"
"물론입니다"
"그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합니까?"
"물론이지요"
"그 손님이 당신이 차린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니까?"
"물론 나의 음식이지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한 욕설과 비난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고 불태우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전에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자신을 살피고 본래 심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정신을 많이 설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 개강과 함께 지지개

민중생존권·청년실업문제 등 본격 제기

IMF이후 가중되고 있는 민중들의 생존권 문제와 대학생 실업문제 등이 여전히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학기 개강을 맞아 학생운동권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재야 사회단체들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요구 등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단체와 학생들간의 연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임시의정=윤기진·명지대 총학생회장)의 경우 이미 각 지역총련을 세우고 99년 사업을 진행하는 등 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빈민과의 연대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올 한해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4월 대의원대회와 5월 출범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민중생존권 문

제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정부 당국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학생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또한 한총련과 함께 오는 4월 2일 '반민중적 구조조정 저지와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전국학생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 △교공의 공공성 쟁취 △민중생존권 쟁취 등을 주 내용으로 대학생 실업문제의 해결과 국가교육재정의 확보, 정리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편적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시대정신을 복원하고 △학생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율과 공존의 원리 실현 △대학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실천을 학생운동의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아래 지난 7일 서강대에서 결성식을 치른 전국학생협의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2002년 가칭 '한국대학생연합'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진행될 노학연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예

정이다.

이와 같은 활동이외에도 이들 학생운동단체들은 대학내의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쟁점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교육재정 6%의 확보와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정상화 문제, 특히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 환경, 여성 등 각부분 계열의 운동들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부분 운동들은 현실 사회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거개진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학생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스스로는 경직된 권위주의적 조직체계를 운영한다거나, 실천을 주장하면서 공허한 관념적 논쟁에 곧잘 빠져 들곤했던 그간의 경향이 여러가지로 변모된 국내의 적 상황속에서 어떻게 바뀌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부

대량실업, 선진사례 활용필요

전 독일 노동장관 초청 간담회서 제언

지난 10일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연합'을 주제로 독일 전 노동부 장관 헤르베르트 에렌베르그(Herbert Ehrenberg) 박사 초청 간담회가 서울캠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열렸다.

본교 경제경영연구원·한국경제학회 공동으로 주최하고, Friedrich-Ebert재단과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한독경상학회장 차수련 교수의 소개말 △경제경영연구원장 황용호(회계학) 교수의 인사말 △Herbert Ehrenberg 박사의 주제발표 △토론 △Friedrich-

Ebert재단 Perter Mayer 박사의 맺음말 순으로 진행됐다.

독일이 통일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사태 극복 사례와 노사정위의 관계유지 경험은 현 국제금융체제 아래서 대량실업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열린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차수련(경영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도 2백만에 육박해 있다"며 "앞서서 경험한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원용해 극복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정대학 교환학생 선발

원서교부·접수는 22일까지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학) 학술교류부는 일본 대정대학 교환학생을 오는 24일 선발한다.

오늘(15일)부터 시작된 원서교부 및 접수는 22일까지이며, 대정대학 개설전과목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을 선발한다. 파견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이다.

지원자격은 현재 학부과정 5학기 및 석·박사과정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 이하여야 하고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일본어에 능통한 학생이어야 한다.

교환학생은 파견기간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대학기 수업료 반액의 장학금 지급 △파견대학에서의 취득학점 인정 등의 혜택과 함께 대정대학에서는 교환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면제와 월 8만엔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선발방법은 △학교성적 20% △일본어 테스트(필기20%, 회화 20%) △면접 40%이다.

부속기관장·부장급 인사 단행

본교는 지난 3월 1일 교무위원급 인사에 이어 오늘(15일)자로 부속기관장 및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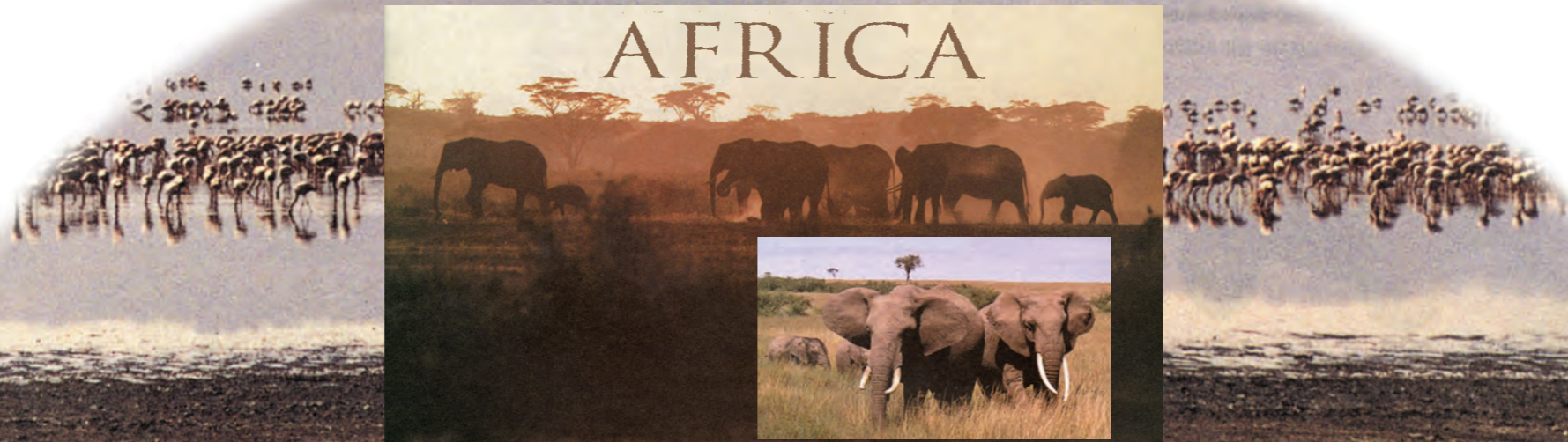
△과학관장=노완섭(식품공학) △보건의소장 서리=김경호(한의학) △실험농장장=김경재(식물자원학) △비구수행원 사감=강문선(선학) △컴퓨터교육원장=조암(산업공학) △학생생활상담센터소장=정진환(교육학) △학술교류부장=이병철(경영학) △불교문화연구원장=목정배(불교학) △자연과학연구원장=김해중(통계학) △산업기술연구원장=백수현(전기공학) △한국문학연구소장=임기중(국문학) △교육연구원장=유시규(수학교육학) △고교사반 지도교수 겸 계산고시학사 사감=김상수(법학)

수업시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대학내에서 이동전화와 호출기 등 이동통신기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캠 관리처(처장=김종욱) 관계과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로 '열람실에선 핸드폰 및 호출기 스위치를 OFF로'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팻말을 학내 강의실 등에 부착했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취재수첩,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아프리카로 떠날 생각이 있습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당신의 호기심을 채워 드리겠습니다.

- ▶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 캠퍼스 00명
- ▶ 응시자격 : 99학번 남·여 재학생
- ▶ 모집분야 : 취재·사진·민화 기자
-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 원서접수 : 3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면접일시 및 장소 : 3월 25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 본사 기자에게는 장려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됨

수강신청 최종확인

16·17일 각대학 교학과에서

교무처(처장=서윤길·불교학)는 9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인을 오는 16일부터 2일간 각 대학 교학과 및 학부(과)에서 실시한다.

수강신청 및 정정한 교과목의 학수번호, 강좌번호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수강신청 최종확인서를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정기간이

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수강신청을 아직하지 못한 학생이나 추가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 등의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이 가능하다.

한편, 특별시험 합격자는 학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번 기간에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

인턴사원 모집마감

6개월간 국고보조금 지급

서울캠은 98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1백61명의 정부지원 인턴사원 추천을 마감했다.

이번 추천으로 선발된 인턴사원은 6개월간 삼성그룹의 1백여개의 회사에 근무하며 그 기간동안 국고보조금 약 4억 8천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취업과의 한 관계자는 "올해에는 미취업 졸업

생들이 많은데 더 많은 학생들을 추천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경주캠의 경우 노동부에서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인턴사원을 3차에 걸쳐 모집한 결과 1백32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88개의 외부업체로 파견됐다.

전교생 인·적성검사 실시

학과 검사 19일, 직업 검사 23일까지 접수

학생생활상담센터(소장=정진환·교육학)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과 및 직업 선택을 위한 인·적성 검사를 오는 23일과 25일 오후 3시에 각각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직업에 대한 능력유형, 인성유형 그리고 선

호 경향을 측정해 학생들의 전공선택이나 장래의 직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각각 오는 19일과 23일까지 받는다.

중앙도서관 정상 운영

4·5층 열람실 밤 12까지 개관

중앙도서관(관장=김병식·화학)은 개관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1층 멀티미디어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층 과제서실·불교학 자료실은 오

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3층 참고서실·정기간행물실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4·5층 열람실은 새벽 6시부터 밤 12까지 개관한다.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신청 접수

2학년 이상 재학생 대상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사범대 교학과에서 접수한다.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희망하

는 99학년도 현재 2학년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본 과정을 이수할 시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자격이 주어진다.

10개 요구안 답변 주목돼

지난 8일 3차 등협... 대학운영위 문제 등 난항 예상

학자보고대회에서 식당개선·법인전입금 확충 요구

지난 8일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와 학교당국의 3차 등협 협의가 학생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오늘(15일)총학생회가 제시한 10개 요구안에 대한 학교측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등협 협의에서는 1·2차 협의의 때 서로의 입장 확인수준에 머문것에 비해 총학생회가 학교 당국에 △국가교육재정 확보로 등록금 삭감 △등록금 분할 납부 실시 △장학금 확충 △학부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부제 위원회 건설 △교수 충원과 교양강좌 증설 △학생 경비 20%확보 △의결권을 지닌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등의 10개 요구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0개 요구안과 관련해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해본 결과 미납자가 많이 발생해 시행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분할납부 시행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측은 각대학 교학과에서 교수총원 요청이 들어오면 교무처에서 이를 수용 교수를 임용하고 있으며, 의결권과 '대학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제외한 음브즈만 제도식 기구 구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등록금 협의에 이어 지난 10일 오후 1시 불상앞에서 '학원자주화 투쟁승리를 위한 보고대회'가 새내기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협의 경과보고 △상록원·동국관 학생식당 문제 규탄발언 △결의 발언 △도서관과 동국관 앞 선전전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대학운영위원회 건설과 학원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상록원은 식당전용 공간으로 학내 복지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동국관 학생식당의 빠른 공사진행을 촉구하며 상록원 3층 사경실 배치를 반대했다. 또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의 등록금은 한 푼도 적립되어서는 안된다"며 "법인은 학교에 법정 부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학생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불상앞에서 학원자주화 투쟁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지난 8일 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학원자주화 투쟁승리를 위한 보고대회'가 불상앞에서 진행됐다.



구조조정(?)... 개관을 맞아 다량관 구내서점은 많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신간도서와 사회과학도서들이 배치되었던 기판대 위도 어느새 두꺼운 원서들과 전공서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자리를 빼앗긴 도서들은 계산대 아래로 자리를 옮긴 상태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동연, 17일부터 동아리박람회 개최

합동공연·거리선전 등 다채로운 행사 준비

올해 3회를 맞이하는 동아리박람회가 동아리연합회(회장=박종근·영문(야)3)주최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다.

62개 동아리와 동아리 연합회를 알리고 공동의 신입생을 유치하며 새기발 혹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올봄은 대학문화 창출을 위한 고민의 장 △분과체계 강화와 동아리간의 안정적인 소통 및 공동체 문화의 건설을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연분과의 합

동 공연, 새터 연장 사업으로 새내기 의식조사, 거리선전, 체육 동아리의 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기간 내에 불상 앞 팔정도, 학관 앞, 후문 앞, 동국관 앞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선전활동들 벌이는 '거리마당'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박람회 첫날인 17일 오후 5시 학생회관 앞에서 15대 동아리연합회 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다.

졸준위, 총운위 개최

18일 5시 명진관(A203)에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노승수·화공4)는 오는 18일 오후 5시 명진관(A203)에서 총운위원회 개최한다.

총운위원회의 구성원인 현재 4학년 과대표들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이번 총운위에서는 졸준위가 현재 준비중인 99학년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심의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졸준위의 한 관계자는 "4학년 과대표들이 많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석 동문, 이번엔 '칸첸중카'

브로드피크 등 3곳만 더 오르면 14좌 완등

박영석 동문이 이끄는 '동국대 히말라야 8천미터 이상 고봉 14좌 완등'가 세계 3위 봉인 칸첸중카 등정을 위해 내일(16일) 출발한다.

지난해 12월 6일 마나슬루 정상에 오른 이후 11번째 진행되는 이번 등정으로 박영석 동문은 93

년도에 에베레스트 남동릉을 세계최초로 오른 이후 본교 출신 산악인 김형우, 유진욱, 박강도, 윤필중 씨와 함께 에베레스트 14좌 완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원정대는 칸첸중카 등정 이후 2천원까지 브로드피크, K2, 마칼루를 차례로 등정할 예정이다.

고수동정

▲홍윤식(역사교육)=오늘(15일)부터 17일까지 대만 고흥현 광덕사에서 정각불교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학술회의 참석.

▲진효린(종어중문학)=해의 자매대학인 중국 북경대학 교수로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서울캠퍼스에 파견되어 영어중문학과 강좌를 담당.

교육실습비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99학년도 교육실습에 따른 교육실습비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1. 대상자 : 99년 8월 졸업예정자 및 2000년 2월 졸업예정자인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실습기간 : 99. 4. 6(화) ~ 5. 1(토) 4주간
3. 실습비 : 일금 칠만원정(₩70,000)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4. 실습비 접수기간 : 99. 3. 18(목) ~ 3. 19(목) 오후4시까지
5.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 99. 3. 31(수) 오후 5시 사범대 소강당(학림관)
6. 교육실습 일시 및 명찰 교부 : 99. 3. 31(수) 오리엔테이션 후
(1) 사범대생 : 각 학과별 배부
(2) 비사범대생 : 교학과에서 일괄 배부

사범대학장

봄 특 강

- 1. 접수기간 : 3월15일(월) ~ 3월31일(수)
2. 강의기간 : 3월22일(월) ~ 5월14일(금) 8주
(단, 주재현 JFKN강의는 3월22일 ~ 3월31일까지는 공개강의이며 본 강의는 4월1일 ~ 5월31일까지)
3. 공개강의 : 3월22일(월) ~ 3월24일(수)
4. 접수장소 : 동국대 구내서점(다향관 지하)
5. 접수비 : 20,000원 동일(단, 중국어 초급 강의는 30,000원)
6. 강좌명 : ①TOEIC : 안박사 TOEIC, SYSTEM TOEIC
②TOEFL : 신경향 아카데미 TOEFL, 신경향 시사 TOEFL
③LESTEING : CULT ENGLISH, 주재현 JFKN
④제2외국어 : 일본어 초급, 중국어 초급
7. 강의시간 : 오전 7시30분 ~ 오전 8시50분
※강의실 추후공고

학생복지위원회

대학원 연구과정생 모집(추가)

- 1. 모집과정 및 개설강좌
모집과정: 1학기, 2학기
시스템분석과정: 체계지향 개발방법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4세대 언어 프로그래밍, 정보시스템 계획 및 분석
창업 및 벤처경영과정: 사업성 분석/사업계획, 벤처기업 창업 소집포 창업, 기업정보보호, 신제품/신사업개발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과정: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네트워크 보안실무
국제금융과정: 국제금융관리, 재무회계, 국제투자론, 국제회계, 국제금융실무, 국제회계연결
*본 대학원 학위과정 진학시 일부학점을 인정함.
*대학원 및 특수(전문)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지원 현황에 따라 모집과정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미취업자.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기술고사
4.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1부, 2) 대학졸업증명서 1부, 3)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면접 및 기술고사 서식(소정양식) 각 1부
5.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99. 3. 15(월) ~ 3. 19(금) 9:00~17:00, 2) 원서접수 : 99. 3. 18(목) ~ 3. 19(금), 3) 전형일시 : 99. 3. 20(토) 10:00 ~, 4) 합격자 발표 : 99. 3. 22(월)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대학원장

신학기 특별 할인 행사

기간	품목	제품명	장소	세부내역	연락처
99.3.8~3.26	노트북PC	상업용	다향관 앞	S60-A1 MMX360MHz, EDO 32MB, 512KB CACHE, 2MB SDRAM, 12.1" SVGA TFT LCD, HDD 3.2GB, CD 24x, 56k FAX/MODEM => 2,134,000원(할부 구입 가능)	2360-8974
				S750-A1 CEL-266MHz, EDO 32MB, 128KB CACHE, 4MB SDRAM, 12.1" SVGA TFT LCD, HDD 3.2GB, CD 24x => 2,530,000원(할부 구입 가능)	
	016PCS	원동통신	다향관	▶ PCSE 무료 제공, ▶ 무료통화 160분	2360-8970
	필름, 일회용카메라	루미, 코니카, 아가	다향관 사진관	▶ 필름 24 => 5*7 확대 쿠폰 1매 증정, ▶ 필름 36 => 5*7 확대 쿠폰 2매 증정, ▶ 코니카 일회용 카메라 30% 할인 판매	2360-8971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홈페이지 개설

본 졸업준비위원회에서는 4학년 및 학우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니 학우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 1. 접속방법: 가.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 : http://dgucc.dongguk.ac.kr/~graduation 나. 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ac.kr)에서 졸업준비위원회 아이콘을 직접 클릭.
2. 내용: 졸업준비위원회 소개, 일정공고, 취업정보 사이트 링크 등

졸업준비위원회

동약로



공동체

한 새내기 왈, "선배들이 사주는 밥 먹는 재미로 학교에 온다니까요." 학기초에 새내기들이 선배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은 우리 대학의 자연스러운 문화이다. "선배님 배고파요, 네?" 끼니 때마다 새내기들은 새터 또는 학생회실에서 얼굴을 익힌 선배들에게 씩씩하게 매달려 본다. "그런데 이상해, 왜 선배들끼리는 얼굴도 모르는 거지?", "맛아. 새터 때에도 우리가 자기소개 할 때 선배들 끼리도 하더라." 새내기들은 여러 동절할 따름이다. "단체생활실, 계열실, 학생회실...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지?" 어디를 가야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또한 난감하지만 한다.

신입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원인은 학부제와 학제개편으로 귀결된다. 전공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 하에 시행한 학부제는 커리큘럼 자체의 분체를 차지하고는 대학사회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 문화에 타격을 안겨 주었다. 이와 더불어 야간 강좌가 주간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신입생을 맞게된 야간강좌 학생들은 어떻게 후배를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새내기를 처음 맞다는 한 학생은 "신입생을 만나도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어차피 술 자리를 떠나면 서로 신경 쓸 기회가 없거든요"라고 심중을 밝힌다.

한 신입생은 "학교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선배가 없어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회는 점점 능력과 실적 평가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대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또한, 모집단위의 거대화과 복잡한 학과 통폐합 속에서 자신의 소속을 규정짓는 것 또한 쉬운일이 아니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 그들이 대학에서 겪고있는 혼란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학부제와 복잡한 학제개편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가져온 개인주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미숙 ionia@cakra.dongguk.ac.kr

유가협 농성단을 찾아

그들의 이름을 바로잡아라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은 역사적 선결 과제

'128일째'. 지난 11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 붙어있는 농성 낙담제를 알리는 이 숫자를 보자 겨우내 혹독한 추위를 이겨냈을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배은심)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민주화 운동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외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명예회복 관련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 될 예정이고, 특별법은 현재 국가인권기구 설치법안에 부칙으로 제정돼 있어,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서 민주화 운동관련 유공자법위문정 문제가 광범위해 쉽게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밝히지만 유가협에서는 "자민련이나 국가보훈처에서 반대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천막에서 밤을 보낸 이들의 아침은 국회의사당 앞 선전집회로 시작된다. "우리는

정부의 관심을 유발해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데 목표가 있다"며 "국민의 정부는 하루 빨리 나라와 노동운동을 위해 죽어간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범법자의 굴레를 벗겨야만 한다"고 집회에 참가한 한 유가협 관계자는 전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유가협 회원은 "민주화 운동은 지난 70년대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이다. 이런 운동을 13년째 하고 있지"라며 "4·19와 5·18 등의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갔고 그들이 외친 것은 오직 자유, 민주였는데"라며 눈물을 적셨다.



화창한 봄날씨에도 대조적으로 정적만이 감도는 유가협 농성단막의 모습.

우리 사회 민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명예만이라도 올바르게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춘)

jaehun79@cakra.dongguk.ac.kr



오월 ... 지난 12일 2시, 법무부 앞에서 김영삼 시절 정치수배자의 어머니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해제, 선별 구속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숙 ionia@cakra.dongguk.ac.kr

한겨레신문 제 위상 찾기

오늘(15일) 공청회 개최

국민주 신문인 한겨레신문의 위상을 되찾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과 몇몇 재야단체들이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늘(15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56동 105호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겨레 신문이 관재언론과 차별성을 띤 진정한 국민의 눈과 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문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시작은 전 안기부 고문책임자 정형근 의원

고문사건의 진상규명과 고문행위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시민모임 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10일 종로 5가 구 기독교 회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는 고문가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안기부 고문 책임자인 정형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규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형근씨는 87년도 안기부 대공수사국 단장시절 박종철씨 고문치사 행위 은닉사건, 89년도 서경원 의원 사건과 92년도 이선실 사건 등 굵직한 고문사건에 연루되었다.

고문가해자 청산과 더불어 과거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의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연대기반을 꾸준히 다져나가고 있다.

사회부

기획-내각제 시리즈 2

내각제 개헌은 시기상조

의회수준 · 지역정당 한계 ... 정치개혁 선행돼야

1. 내각제의 특성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각제
2. 현 시기에서 내각제는 적합한가
3. 당면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최근들어 정치권에서는 내각제 개헌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에서 내각제 개헌의 추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각제 개헌의 실현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각제 자체가 한국의 정치 현실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내각제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종적인 선택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DJP합의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공신력있는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내각제 지지도가 대통령제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내각제 개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국민 여론은 한국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내각제가 부적합하다는 저마다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현 시기에 내각제가 적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정리해 보면, 한국의 정치현실에 내각제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은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의회정치의 수준이 저급한 한국의 정치현실에는 내각제가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각제의 핵심은 '내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는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그 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의회와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균형을 통해 운영되는 민주적인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내각제의 핵심은 당연히 의회가 되며, 의회의 다수당이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하게 되어 자칫 정당독재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는 것이 이른바 내각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정치의 성숙한 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회가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토론과 타협의 미덕보다는 힘의 논리가 앞서는가 하면, 심지어 개인의 방탕국회라고까지 불리는 파행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불 내각제를 실시한다면, 과

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지는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다.

내각제가 부적합한 또 한가지의 중요한 이유는 한국 정당의 지역적 한계로부터 야기되는 것인데, 내각제의 실시가 지역갈등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현존하는 한국의 모든 정당들은 저마다 확고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내각제를 실시하게 될 때 정당들간의 제휴와 연합은 결국 지역간의 제휴와 연합으로 귀결됨으로써 지역갈등의 확대재생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비근한 예로 각각 호남과 충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역차별 또는 역지역차별에 관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각제 실시로 인해 자칫 지역패권의 쟁탈전이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해 주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각제의 본질은 단순히 내각책임제나 의원내각제의 형태가 아닌 독일식의 '수상중심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일식 수상중심제는 따지고 보면,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 못지 않은 강력한 권한을 수상이 보유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증거로 독일에서 현행 수상중심제를 채택한 이후 단 한차례도 수상이 불신임을 당하거나 의회임기 안에 내각이 해산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정치발전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였던 대통령 1인의 독신, 독단, 독주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중심제에 대비되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권한과 지위를 갖는 대통령을 따로 두고 실권을 독점하는 수상을 만들어내는 정부형태의 변경을 통해 과연 얼마나 민주정치의 수준을 높일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한국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내각제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결론이다. 저급한 의회정치의 수준, 지역정당의 한계, 그리고 민주정치발전의 불확실성 등은 내각제가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조차 발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기에 고민해야 할 문제는 내각제 개헌보다는 정치개혁임을 강조하고 싶다.

호 광 석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양심수 없는 나라

'양심수 없는 나라' 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대중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단행된 사면, 복권 조치는 또다시 '말뿐인 잔치'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3백여명이 넘는 양심수 가운데 단 41명만이 석방되었으며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이들이 아직도 차디찬 감옥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한편의 책에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준법서약서 철폐, 정치수배 해제 등 민족양심의 소리를 담았습니다. 다가올 새 천년은 양심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살림터 / 7,500원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지음



세상을 여는 민족자유 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 세계인권선언 지지 백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서명하는 곳 : 인터넷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pori.jinbo.net

공기업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 **논단**

신중한 정책 · 국민여론 기반해야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공공부문에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비능률과 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공공부문에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축소 및 통폐합에 이어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포항제철과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11개기관 21개 자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방법과 일정 등이 발표되었고 이어 계속해서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매각대상 공기업들은 검토대상인 총 108개의 공기업 중에서 30%를 차지하지만 종업원 수나 규모로 보면 70%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외에도 한국관광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기업 민영화의 기대 효과

사실 공기업의 민영화시도는 68년도부터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공기업

의 민영화가 이해집단의 반발, 부처의 이기주의, 증시침체, 경제력 집중문제, 특허 시비 등을 이유로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은 과거와는 다른 상황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공기업민영화의 배경은 경영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공기업 매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매우는 한편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등 구조조정에 총당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대해 일반여론은 그 기본 취지나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듯하나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은 사뭇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이고 성급한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개혁방향

첫째, 공기업민영화의 대상기업선정과 인수기업선정을 공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지도 않은 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민영화를 시킨다든지,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산업에서 마치 무차별로 공기업들을 몇몇분하여 작은 규모로 나누어 민영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느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어 공기업의 인수를시키는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는 결과를 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기업의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독과점적 지위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영화에 앞서 경쟁제제도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상 신규기업은 대량의 초기자본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을 터주어 독점체제가 유지될



송 일 호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수 없도록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리한 공기업민영화에 앞서 경쟁력이 없는 공기업은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퇴출시킴으로써 공기업이 생존경쟁을 위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에 따라 발생할 대량감원을 통한 실업대책을 세운후 민영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위해 그에 따른 고통의 대부분을 노동자에게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에 따른최소한의 인력감축에 대한 노력, 산업간 혹은 직종간의 노동의 이동을 통한 실업자 구제, 해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재취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제공 등 성의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공기업민영화가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길

보건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분야이다. 그만큼 중요한 보건분야 행정과 정책은 식품의약품과 국회 보건복지위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기에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의 경우 그간 문제가 돼왔던 환경호르몬이나 맹독성 농약제소, 방부제 함유 통조림 등에 대해 갈팡질팡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며, 시민·환경 단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무성의하게 대처해 왔던 게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 1월 말 식품의약품과 안전관리국장이 심여일 간격으로 사이 좋게 뇌물수수 사실이 발각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으며, 이후에도 이들의 구속으로 공식이 된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정책입안자들도 국민의 건강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에 둔 결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30여년간 끌어오다 올 7월 1일 실시 예정이던 의약품업이 의약계 출신이 대부분인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1년 연기된 것이다. 의약품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약제비 절감, 의료인력 효율적 운용 등의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개혁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연기시켜 놓은 이들의 변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을 것인가.

보건 정책과 행정의 유일한 잣대는 국민의 건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스스로 설자라도 생기는 것이다. 돈이나 밝히고 정치적 입장에만 급급해 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학내 상행위 근절돼야

대학은 순수함과 때묻지 않은 이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장이며, 따라서 기성사회의 무분별한 물질만능주의는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주캠퍼스에서는 신입생을 맞는 개강 초에 기성사회에서나 있음직한 '글로벌 사태'의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교문앞에서 현란한 차림의 아가씨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상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본교를 어떻게 바라 볼런지 걱정스럽고 답답할 뿐이다.

지난해 5월 대동제와 관련 15대 총학생회 주축으로 열린 바자회는 '대학의 상업성'과 관련하여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당시 바자회는 지역과 함께한다는 좋은 취지 아래 개최됐지만 주민들은 품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 학생들 또한 만족하지 못해 학내외의 여론은 이련류의 바자회가 학내에서 개최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외국어 특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교육에 있다보니 바자회와 다른 성격으로 보여질 뿐, 외부상인을 학내에 끌어 들여 상행위를 한다는 측면에서 상업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총학 취대국, 졸업위, 학복위, 취업과 등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며 개설 하였던 강의가 폐강되는 등 학내 여론은 어학특강의 일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과거의 폐단을 잇은 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어학특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학교는 '글로벌 사태'라는 상처를 또다시 입게 되었다. 잘못된 바자회 개최경험으로부터 개선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매년 학내를 시장판으로 만들었다. 아무리 상업문화가, 판을 친다하더라도 최소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까지 기성사회의 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대학이 잘팔리는 시장이라는 상업적 인식에서 벗어나려면 관례처럼 시행되어 온 바자회와 외국어 특강이 근절돼야 할 것이며, 학교측도 상업성 행사 승인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내 코카콜라 자판기 도입 논란

“음료수는 기호품 ... 선택은 소비자가”

우리 먹거리 문화잠식은 우려

미국 거대자본의 대표적 상품으로 꼽히는 코카콜라가 서울캠 음료 자판기의 대다수를 점유해 학생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설치를 시작한 코카콜라 자판기는 현재 17대에 이르고 있다. 전체 45대의 자판기 중에서 롯데칠성이나 동아오츠카의 자판기 대수가 각각 16대와 12대라는 것에 비추면 그만큼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특징인 화려한 마케팅 전략과 상품의 절반이상을 자사제품으로 진열해놓는 상술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점유율이다.

매년 초에 음료 자판기 업체 선정을 실시하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은 '저렴한 단가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급업체'라는 기준으로 롯데칠성, 동아음료와 함께 코카콜라 자판기를 도입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2학기쯤에 코카콜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학내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생활의 한 관계자는 “코카콜라의 매번 자본적 특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본교에 어떤 방향이 더 이익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상품을 개발하거나 학생들의 의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찬정(수교4) 서울캠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코카콜라 자판기 도입에 대해 “생활운영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식생활 문화에 대한 여론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학생회만의 단독행동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판기 도입과 불매운동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코카콜라 불매운동'을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벌여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때 실시한 코카콜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



대가 절반으로 나뉜 사실을 제시하며 “여론화 작업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불매운동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제브랜드그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약 2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브랜드란 제품의 얼굴이자 속성이기 때문에 한번 구축된 강력한 브랜드는 경쟁사들이 쉽게 넘어 설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코카콜라가 국내시장에 원액만을 공급하는 하청제에서 97년 직영체제로 전환한 뒤 거대한 자본을 배경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해 오고 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음료의 등장이 당장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물론, 콜라가 기호품이기에 무조건 먹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이 코카콜라로 인한 우리 먹거리 문화 잠식과 적잖은 로열티 지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선택 코카콜라 자판기에 동전은 넣지 못할 것이다.

<출>

jaehun79@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부주 김규박	편집장 박상관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편집장 김미경		하이텔·나우누리 ID dg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7
		팩스 (0561)770-2058

마로니에 공원에 위치한 사주백화점.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대학로와는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풍경이지만, 사장 김상택(가명)씨가 이곳에서 일한지는 벌써 9년이나 된다.

이처럼 젊은 이제 젊은 사람들과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것이 되었다. 신문이나 잡지의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점, 그리고 사주카페 등. 게다가, 가상공간에서도 점의 활약(?)은 대단하다. 그렇다면 점이 이와같이 일상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운명’이란 것은 ‘따로 없다’

젊은...

어떤 시대 어느 사회를 가릴 것 없이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무관심한 때는 없었다.

현재의 지위가 높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복락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근심하며, 현재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덜 만족스러우면 상승의 욕구가 실현될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둔 이는 자신의 본신인 자식의 장래가 심히 궁금할 것이며, 어버이를 모시는 이는 어버이의 안위가 항상 열려스러울 것이다. 인간은 군집생활 속에서 이래 저래 궁금하고 관심가는 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날의 운수나 길흉을 미리 판단하는 행위인 '점'을 보게 된다. 만약 미래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갖가지 역운을 피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점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는 진지하고도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점을 통해 미래를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므로 점의 예측성이 부정될 때에는 아무런 논의의 가치가 없게 된다.

점의 종류와 방법

개인 또는 공동체의 운명을 판단하는 점은 그 사회의 환경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는데, 현대 한국인의 경우 신점, 사주, 관상, 역점, 토정비결 등을 애용하는 편이다. 그 외에도 옛날에 많이 이용되었던 자연관상점, 동식물점, 해몽점, 승부점 등이 있으며 점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혈족 집단의 운명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풍수지리가 있다.

신점은 강신현상을 겪은, 소위 신들린 사람들이 신과의 교감을 통해 신령이나 귀신이 타인의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원시사회에서부터 존재하던 것이 변화 발전해온 것이다.

사주는 한자로 녀 사(四)자에 기둥 주(柱)자를 쓴다. 태어난 년·월·일·시를 각각 하나의 기둥으로 보아 네개의 기둥이라고 하여,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팔자는 무엇인가? 년·월·일·시 즉 각 기둥은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2개의 글자씩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금년의 입춘이 음력으로 1월 8일(양력 2월 4일)이었는데, 그 시각을 년월일시로 정확히 표기하면 무인년 갑인월 임오일 갑진시가 된다. 이 때 무인 갑

“ 원래 점의 배후에는 미래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점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맹신은 오히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줄 뿐이다.”

인 임오 갑진이 모두 여덟 글자이므로 팔자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와 팔자라는 말은 완전히 동의어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가 큰 재물을 얻었다거나 벼슬을 얻었다거나 또는 여자가 개가하면, 흔히 '팔자고쳤다'라는 말을 한다. 사주라는 말과 팔자라는 말은 동의어이므로 사주는 못바뀌고 팔자는 고친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음에도, 그러나, '팔자'라는 단어가 전의되어 '변화할 수 있는 운명'의 의미라면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팔자'는 '사주팔자'에서 나온 말이지만, 한평생 살아 가면서 변화가는 즉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운수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관상은 사람의 얼굴모양과 신체의 형상 등을 보아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관상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얼굴과 체형을 함께하여 전체를 하나로 보고 또 얼굴의 요소요소를 참고해야 하며, 목소리의 색깔도 빠짐없이 참고 하여야 한다. 관상을 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사람의 오장에서 나오는 진기를 얼굴을 통해서 정확히 읽어야 하고 살갗에 나타나는 색깔의 의미를 위치에 따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의미를 예측해야하기 때문에 지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사람의 얼굴모양으로도 많은 것을 판단하지만, 기색(찰색)의 변화를 살피지 않고서 관상을 정확히 볼 수는 없다. 사람의 얼굴 색은 보통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수시로 변한다. 그래서 관상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사람의 기색이 가장 정확히 드러나는 시각, 하늘이 이제 밝으려고 하는 새벽이 가장 좋다고 한다. 이 때는 사람들이 세상사에 시달려 얼굴이 변화하지 않은 시각이므로 침실에서 곧바로 훑물로 비추어 보면 그 길흉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히 화장을 많이 하는 여성의 경우 화장을 하면 기색을 전혀 볼 수 없으므로 화장을 지운후 최소한 4-5시간은 지나야 한다. 한집에서 자기 않는 한 새벽에 세수도 않은채 만나기도 어려우니 관상을 보는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게 많은 부분을 유추해야 한다.

역점(작괘점)은 음양오행과 수리를 기초로 하여 괘를 만들고 이것을 역리에 맞추어 해석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토정비결은 16세기 선조 때 사람 토정 이지함이 지은 토정비결을 바탕으로 인생의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의 혈족집단의 운을 판단하는 풍수지리설은 원시사회에서부터 생존을 위해 바람을 피하고 물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형성된 이론에 형이상학적 가치가 부여된 사상체계이다.

점에 대한 시각

비록 입으로는 '그저 재미로 본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 점을 보는 까닭은 적어도 '운명'이라는 존재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 운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높다. '승진이나 출세에 운이 필요하냐'라는 물음에 64.53%가 '그렇다'는 긍정적 답을 한 반면에 겨우 17.08%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을 하였다.(93, 94년도 필자의 조사 결과, 전국 규모의 대학생 및 경기도 중심 직장 대상, 응답자 1,979명) 물론 운을 타고난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 종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73% 이상의 사람이 '타고난 것'을 운의 정의에 포함 시키고 있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83.36%, 무종교 78.36%, 천주교72.38%, 기독교(개신교)59.32%로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렇듯이 타고난 운에 따라 인간의 현실생활이 달라 나타난다고 생각

하는 한은 점을 보는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가족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68.5%)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25.73%)보다 월등히 많았다.

결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정하더라도 점을 남몰래 많이 보고 있거나 볼 자재가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의 점이 더 맞을 것인가 하는 '신뢰도'이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다양한 점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신뢰할까? 대체로 관상과 풍수지리에 대해 많은 믿음을 보인다.(93년 전국대학생 대상조사, 관상에 대한 신뢰308/746 불신219/746, 풍수지리에 대한 신뢰330/747 불신161/747) 이는 근자에 들어 관상의 통계적 요소가 널리 인식되었고 풍수지리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및 관련 서적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까닭이다.

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인간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앞날을 예측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점은 나름대로의 예측성과 순기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을 통해 완벽하게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타고난 운의 흐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선천적 특성이 예측의 정보가 되지만 각자의 의지와 노력은 개인의 타고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운명은 목적이 없으며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곳에는 신의 계산된 함로가 없다. 만약 신이 세상을 마음대로 조정한다면 운명론이 아닌 천명론이 될 것이며, 세상만사가 천명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면 누구나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직분의 복록을 저절로 누릴 것이니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명은 하늘에 의해서 또는 신에 의해서 주어지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운명은 미래의 존망이나 생사에 대한 처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운명이란 말은 자유의지의 반대말이 아니라 깨닫고 살고 뒤돌아 따라 달라지는 디자인 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점의 결과가 휘황찬란 하더라도 기뻐만 할 수 없고 암흑 중의 암흑이라도 슬퍼하거나 낙담만 할 이유가 없다.

김태균
수원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왜 그러구 살어? 팔자나 고치제! 저자

사주카페 천기누설을 찾아

‘운명도 상담해 드립니다’

언제부터나 우후죽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주카페. 인사동 한복판에는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천기누설.

'1999년 3월 12일 금요일. 독립적이며, 독선적인 면이 있다보니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못하구나. 허나 너 좋거나 좋아야 이웃도 좋은 법이니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단념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좋은 때: 토끼띠, 양띠' 입구에 적혀 있는 이 글귀는 오가는 사람들을 카페로 인도한다. 지하라서 그런 것일까? 카페로 내려가는 길은 어두컴컴하다. 그 끝에 나무로 된 문이 있다. 꼭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인양. 문 저쪽으로는 속세(?)와는 다른 향이 난다.

은은한 초롱불은 신비감을 더해준다.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사주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사주를 보고 있는 한 아저씨의 얼굴은 자못 심각하다. 그리고는 길게 담배연기를 뿜어낸다. 연인인 듯한 한 쌍의 남녀는 상담자의 말을 듣다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이내 웃는다.

이 곳에서는 모두 6명의 상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수련생활을 하러 왔다가 역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장효선씨.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8년간 이 일을 해 오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에 12시간동안 이 곳에서 근무하는데 책임감있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사주를 본 사람에게 한해 1년간은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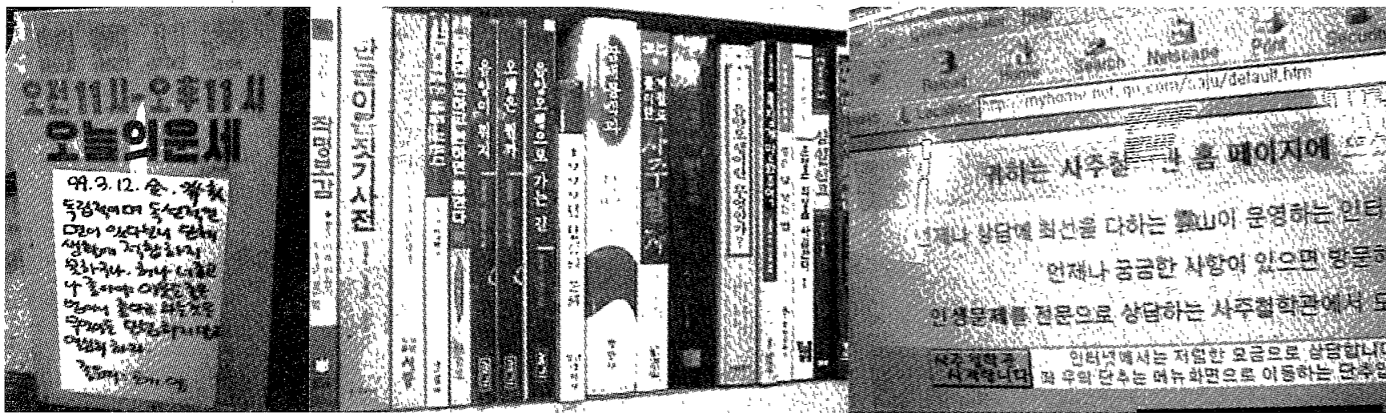
하루에 오는 손님 수는 대략 5-60여명. 이들중 대부분은 20대후반. 진로나 취업, 이성문제, 상사와의 갈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가긴 하는데, 사주를 본 후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른들의 경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지요. 조심하라는 것을 적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신세대라고 하는 20대는 대부분이 장난삼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점이나 사주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보던 것으로 여겨졌으나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점을 많이 본다.

"그 전에도 역술인은 있었지만, 어느날부터 유행처럼 번졌어요. 스티커 사진이나, 텔레비전처럼. 그 이유는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활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박영실 기자
youngsp@cakra.dongguk.ac.kr



점을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

최근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점술의 '개주얼화'와 '사이버화'이다. 이것은 다가오는 21세기에 과학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점술이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심상치 않은 징조이다. 이 모든 상황이 신(新)제정일치시대의 전개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72%가 점을 본 경험이 있고, 그중 69%가 부적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98년 3월 6일자 보도). 평균적으로 한국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점을 보고, 부적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소위 사이버 세대가 불리는 대학생의 경우도 36.9%가 사주·관상·궁합 등의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재작년의 한 조사결과가 밝히고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점을 본 이들 중에서 70% 가량이 점술에 대해 믿을 만하다는 신뢰성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수치를 보더라도 단적으로 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 사망을 둘러싼 예언소동은 국제적인 뉴스 감이었고, 매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점술인들의 발언이 정치 쟁론의 화제보다 언론의 화제가 되곤 한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역술인들의 말에 의하면 연애인, 전문직 종사자, 정치가, 재벌 등 우리 사회의 주도로 계층이 그들의 주고객이라고 한다. 점술은 지위고하, 남녀노소, 교육의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신문기자, 대학교수 등 점술을 미신으로 규정하고, 타파해야 하는 지식인 계층이 도리어 점술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이 까닭은 예로부터 점술의 근본이 된다고 여기는 '주역'에 대한 신비주의적 숭상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런 전통으로 말미암아, 각종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이슈에서 각 개인들의 사소한 일상사까지 점술의 영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우고 있다.

생각해보면, 한국인에게 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익숙한 것이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기를 보다 좋은 일시(日時)에 맞추어 낳기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느라 야간급식을 볼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작명소로 달려가, 좋은 이름을 점지한다. 어디 그것뿐인가, 성장과정에서 슬한 점괘를 받아 보며 자란다. 예능 교육의 과목인 태에서 결정적으로는 갈 대학의 방향까지 점을 친다. 그리고 대학 졸업후 직장 선택을 위해서도 점을 보며,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개인사를 앞두고 궁합을 보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자신들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점점이어서 점을 보게 된다. 결국 인생의 최후 말년은 세를 불으로써 점으로 점결된 한국인의 일생은 대미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뒷자리를 점치는 풍수도사후에 기다리고 있었으니...

최근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점술의 '개주얼화'와 '사이버화'이다. 점술의 개주얼화는 80년대말 어느 유사 종교집단에 의해서 대화가에 뿌리를 내린 소

위 '사주 카페'로 시작되었다. 무당집 같은 분위기였던 점집이 카페화되어 신세대들이 아무 부담 없이 점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승진, 결혼, 진학 등 심각한 내용에서 이성친구와의 교제, 속궁합 등 가볍고 시시콜콜한 내용을 가지고 역술인에게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점술이 기존의 '700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공간으로 진출하여 사이버화 되었다. 이것은 다가오는 21세기에 과학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점술이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심상치 않은 징조이다. 이 모든 상황이 신(新)제정일치 시대의 전개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점 또는 점치는 행위는 인간이 그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를 자연 법칙이나 신의 의사에 일치시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하늘과 신에게 물고자 하는 마음에서 점술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자와 대타인 앞에서 결심하는 인간의 자세를 본다. 점술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이런 자세로 다시 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더이상 점술이 후세무민한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장호 자유기고가

일본의 점 은?

점은 여성층을 고객으로 하는 하나의 상품

대부분 백화점·패션빌딩에 자리잡아

일본의 점은 한국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사주, 한자 이름의 획수, 수상, 별자리 등 세계 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들이 일본에서 또한 주류를 이룬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점을 보는 사람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젊은 여자들을 중심으로 점을 재미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주로 아줌마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마다 열심히 점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 한국의 점은 생활과 더욱 밀착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점이 있고 어른들도 보러 다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일본에서 점을 보러 가고 싶으면 서점에서 말하는 이대나 명동같은 젊은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 간다. 점점이는 대부분 백화점이나 패션빌딩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점을 보는 방법으로서 앞에서 말했듯이 사주·이름·수상 그리고 카드나 동전, 수정 등을 사용한 것들이 있다. 이색적인 것으로는 휴사나 생선을 사용한 것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전자오라실에 가도 점을 볼 수도 있다. 동전을 넣고 몇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기계가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한 잡지에서는 점에 관한 글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주로 젊은 여성



타마다 마거리(사과대 사회4)

역학 상담실에서

"비관적인 이야기보다는 희망을, 불가능보다는 가능성을 말해야"

손님과 상담을 하다보면 어려운 때가 많다. 특히 지금 현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생사를 가를 정도의 위험이 닥쳐올 것이 확실할 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할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일부터 과대 포장하여 위험을 부풀려서 액막이용으로 부적이나 굿을 하고자 하는 사이버 역술인으로 불어갈까봐도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주에 나타난 팔자를 있는 그대로 말하자니 곧바로 어려움이 닥칠 당사자가 눈에 걸리기도 한다.

상담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상담해 나가기 어려운 사람은 수시로 만나게 되는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분도 그런 분들 중의 한 분이다.

점집에 생긴 60대의 노인사 분이 라디오 신년 특집프로그램에서 98년도 새해의 예고방송을 듣고 감명을 받고 왔다고 하셨다. 점집에 자리를 권하고는 관상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인 관상은 점집은 분의 성품에 못 미치게 보였다. 합부로 관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에는 앉아있는 분이 너무 점집이라고 생각하고 사주를 물어 보았더니 여름에 태어나고 불(火)의 날에 태어나고 한 낮에 태어났으니 온통 불(火)일세,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다른 것은 별 필요도 없고 정신병이나 신경성약장애가 있다면 돈을 번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니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노인사 분의 삶도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아 왔다고 보였다. 본인을 앞에 두고 "이 사주의 주인공은 정신병의 증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었다.

본인을 앞에 두고 "이 사주의

주인공은 정신병의 증세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었다.

사주용어를 들먹거리며 무슨 격 사주이고 대운은 어떻게 흐르니 좋지 않다는 등 간단하게 한 두 마디면 끝날 이야기를 빙빙 어려운 역학적인 용어를 들먹이며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분이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자신은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장관의 딸과 결혼했으며 땅을 몇 십만평 가지고 있다, 지금은 폐지를 키우고 있다, 통일부총리를 만나고 통일 방안을 건의하고 왔으며 황실수술 이리저리 많이 뒤 분맥이 맞지 않았다. 분명 정신병의 증세가 있는것이 분명했다. 가난하게 지냈으니 광활한 땅을 원하게 되었고, 결혼은 못 했으니 장관의 딸과 결혼을 꿈꾸었을 것이며, 분단의 아픔을 겪어 왔기에 통일에 대한 간절한 갈구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노인사는 1시간이 지나도록자리에서 일

어날 생각도 없이 도포까지 그려가며 과거의 삶과 자신의 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어릴 적 노스님 사주를 보여주었는데 60세이후부터 인물이 된다고 했으니, 분명 앞으로는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등 이야기가 풀이 없었다.

이 손님과의 상담이 길어지자, 대기실의 손님들은 난리법석이었다. 바쁜 데 왜 이리 안 나오느냐 하며 소리치르는 사람, 다음에 오겠다며 돌아가는 사람 등 어수선했다. 정신병의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설리 잘못 이야기했다가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몰라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간신히 상담을 끝냈다. 아니 상담을 해 준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노인사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다가 끝났던 풀이 된 것이다.

이처럼 상담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는지라 역술인에게는 분명히 통변술이 필요하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한 유명한 역술가가 공함을 보러 온 사람에게 공함이 나쁘다고 말해 주었다가 칼에 찔려 죽은 예도 있다. 얼마나 잘 맞추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70%정도의 정확도만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열고 상담자들에게 맞춰주는 아픔을 풀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학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역학의 학리(學理)를 통해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지 하는 것은 미래의 길흉을 미리 앞으로써 어떠한 일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준비를 갖게 하여 추경피해의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역리학의 가치이며 존재의 당위성이다. 아무리 비천한 사주를 타고 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불가능하다고 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 역술인의 카운셀링 역할일 것이다.

남자에게 실연을 당하고 자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아가씨가 있었다. 그때 만일 내가 그녀에게 "당신 곧 죽을 것이요"라고 했다면 반드시 그녀는 자살했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듯이, 방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이 시기를 극복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라고 용기를 북돋아 돌려보냈는데 그녀는 그 후 건강하고 활기차게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28살의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고 가끔 나의 사무실을 찾는 단골이 되었다.

김동환 민족성철학연구소장

전화는 휴대시대, 예절은 필수시대

"무료통화, 알씨는 따로 있다!"

계산해보면 **017패밀리 무료요금제가 역시 최고!**

이동전화 무료통화 혜택,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조목조목 따져 보십시오. 이미 60만 가입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017패밀리 무료요금제 - 무료통화 시간으로 보나, 평생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보나 역시 최고입니다.

017패밀리 요금제란?
 가족, 연인, 친구끼리 1인 명의로 패밀리에 가입하시면 최대 4명까지 이들 패밀리간 통화요금을 면제해 드려며 가입비도 7만원에서 2만원으로 할인 (영인인 1인제외)해 드립니다. 기존 017 고객의 패밀리구성도 가능합니다.

- 무료통화 시간으로만 봐도 비교가 안됩니다. (8주 평균 94시간 6분, 한달이면 273시간 20분 무료통화)
- 자주 많이 통화하는 연인 사이입수족 훨씬 이득입니다.
- 일시적으로 재공되는 혜택이 아니라 평생 누릴 수 있는 정규요금제입니다.

-요금은 주 가입자 본인에게 각 가입 회원별 세부 내역과 함께 통합하여 청구됩니다. (요금 저용이제 납부조건)
 -로콜, 비즈나스 요금은 물론 표준요금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후 3개월간은 해지, 영의변경, 패밀리해제, 일시정지 등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달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가입하는 경우 위약기간은 1년입니다.

전파의 힘이 강하다!
파워디지털 아7

SHNSEGI 신세기통신 고객센터 수도권(02)3289-1114 부산(051)3252-017 대구(053)7407-017 광주(062)9449-017 대전(042)4804-017 강원(0371)7303-017 017패밀리번호 114+SEGI를 누르시면 그 지역의 고객센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요금은 무료입니다. 콜서비스:080-5555-017 PC통신:천리원,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에서 go ok017 인터넷:www.shinsegi.com

상
세
보
가

화
성
이

발전소를 6개단지로 분할하고, 배전사업소를 지역별로 분할하여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 발표되었다. 그동안,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추호의 고려도 하지 않았다. 또 그들은 결코 정책결정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한보, 기아사태에 대해서는 청문회도 뒤편하며 법석을 떨어도 이보다 몇 배나 더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준 고속철도사업과 이동통신사업의 정책결정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 할 뿐이다.

외자유치의 논리로 초국적 투기자본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의 정책결정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어두운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포항제철, 한보철강 등 철강산업에 대한 미국의 압력, 통신, 담배인삼산업에 대한 자본재한 철폐, 한국중공업 매각 발표 등 국가의 알짜 공기업은 이미 외국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기 작정에 위었고, 국가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전력산업마저도 이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성장의 기반을 상실하고 어떻게 IMF관리체제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어렵다고 국가경제의 심장을 빼줄수는 없는 것이다.

전력산업이 이윤의 대상이 되는 한 전력요금의 인상은 불가피

전력산업정책 '신중히'

하다. 그것도 단기적인 급등에 장기적으로도 안정된 이윤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선택이 부여된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선진국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현재 수준의 2배이상 전력설비가 필요하다. 기업은 이윤추구의 목적상 최소투자를 통한 최대의 이익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고, 목적 이상의 설비투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이윤도 보장하고, 전력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부담금도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연관산업 지원도 해야하고, 규제기관도 설치해야하고, 신규 진입비용, 좌초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한 전력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영국의 민영화 과정의 예를 보면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약 50%의 노동자들이 실직을 했다. 국내 석탄산업, 가스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에 대한 전기요금의 정책적 보조가 중단될 경우, 이제 겨우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찾은 우리 산업 전반에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위축, 각종 조세부담의 가중 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한 우리 경제는 결국 좌초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인한 국가적·사회적 부담은 브라질 등 IMF 모범생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혁인가? 다시한번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호
한국전력노동조합 홍보국장

오늘 의 기 림

김효정 (한의대학교학과 조교)

참사람봉사단 청소년 선도 활동 "인생의 한 부분을 같이 걷는 보람 느껴"

"저보다 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인터뷰 요청까지 받을 자격이 있습니 모르겠네요"라며 쑥스럽다는 듯 웃음을 지어보이는 김효정씨. 본교 가정교육학과 졸업후 한의대 교학과 조교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현재 동료 조교 3명과 함께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방중 경주 지방경찰청에서 신설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교내 참사

람 봉사단 명의로 참가해 봉사활동을 했던 그녀는 "처음엔 망설여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경찰청에서 소개를 해준 학생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학생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하는 부담감과 선임견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라며 선도 활동 시작 당시의 설레었던 마음을 전달해 주었다. 경찰청에서 신설한 이번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 가운데 사회생활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자원봉사자에게 소개시켜주고 6개월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달에 한번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부터 선도활동을 해왔다는 그녀에게 학생을 상대하며 힘들었던 점에 대해 묻자 "처음해보는 선도활동이어서 미숙한 점도 많고, 서로 자라온 환경과 성격이 달라서인지 학생들이 이해하

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또, 학생이 매일 저에게 사생활보고를 하는데 거부감을 느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어도 그 학생의 인생 한부분을 같이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보람이 크게 다가왔어요"라는 그녀의 말에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거부감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과 부모님은 저의 봉사활동을 이해해 주셨고, 때론 제가 놀랄정도로 잘해주셨어요"라고 학생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내비쳤다. 선도활동을 하며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생활에 안정과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녀는 이제 8월이면 조교생활을 마감해야 한다. 이곳 경주를 떠나기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하는 그녀의 웃음속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영) dg19810273@mail.dongguk.ac.kr

의학 상식

알레르기성 비염, 골치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 교정이 붙날이다. 녹야원의 산수유가 어찌 저렇게 선명한 노랑빛일 수 있을까?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가슴 설레면서도 봄만 되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이다. 보통 알레르기란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물질에 의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보통 공기 중에 떠있는 꽃가루와 집안의

알레르기성 비염

꽃가루·집먼지·아침기온차 등 원인 "청결한 주거환경 유지가 예방법"

먼지 등을 코로 흡입하게 됨으로써 발작적인 재채기, 볼 같은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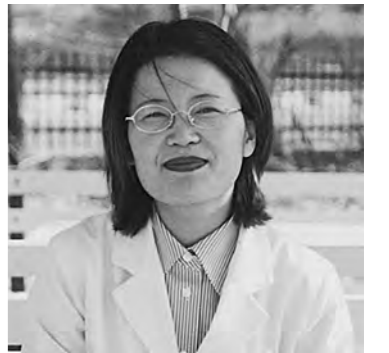
이외에도 두통, 눈의 피로함과 뻑뻑함, 가려움, 눈물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때도 있는데, 눈의 증상은 특히 꽃가루가 날릴 때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수가 많아서 이 현상을 모닝 어택(morning attack)이라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침에 기온 차에 의하여 코의 점막이 과민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해도 이른 봄이나 가을 초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일년 내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되는 항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초(枯草)나 잡초, 꽃가루 등이 원인이 되는 계절성과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털, 진균류, 식품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거의 항원이 될 수 있는 통년성으로 나눌 수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등이 날리는 시기인 봄·가을에 증상이 심해지는데 비하여 통년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1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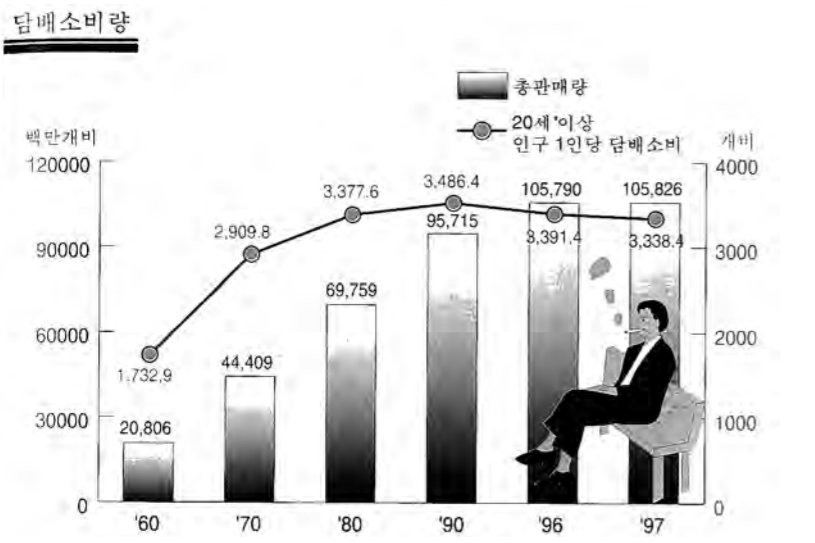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예방법은 항원인자가 되는 꽃가루나 집먼지 등을 피하는 방법이지만 사실상 매우 어렵고, 주거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일정기간 치료를 받는다면 환

히 알려져 있는만큼 그렇게 고질적인 질환만은 아니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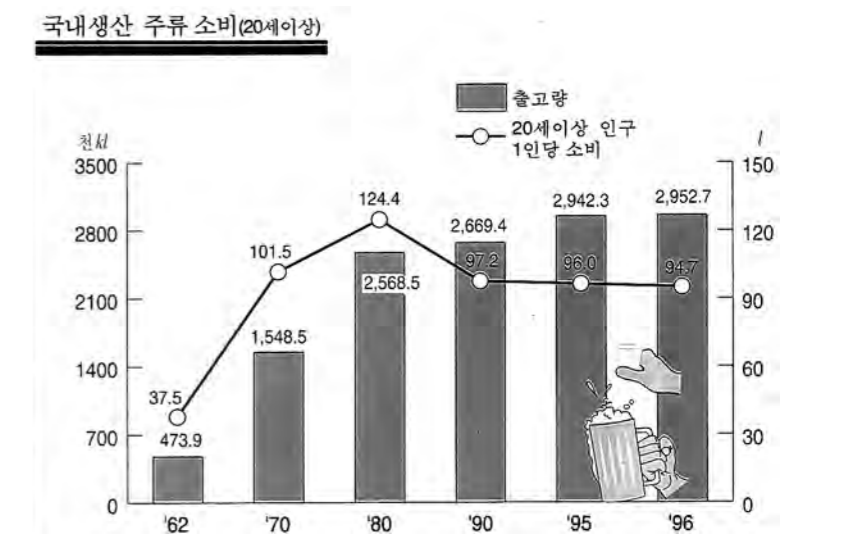
김현아
경주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 교수

그래픽 뉴스



97년의 연간 담배판매량은 1천58억2천6백만개비로 60년 대비 5.1배 늘어났다. 최근 국산담배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대신 수입담배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62년 당시 주류 출고량은 47만3천9백리에서 96년에는 2백95만2천7백리로 6.2배 늘어났고, 20세이상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따져 37.5/에서 94.7/로 늘어났다. 맥주는 62년 당시 주류 총 출고량의 1.2%에 불과하였으나, 96년 현재 63.3%를 차지해 대중주류 자리잡았다.



지역소식

중 구
중구건강증진센터 운영
전문가 도움받아 체질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
● 개인의 체력수준, 건강상태, 질병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운동 처방
● 이용대상 : 30세이상 65세이하 중구민
● 위 치 : 중구보건소5층
● 감시시간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전 11시
● 문 의 : 중구보건소 전화:2250-4451,4463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
http://chunggu.seoul.kr/

경 주
제70회 동아마라톤 대회
오는 21일 제70회 동아마라톤 대회가 오전 11시부터 보문관광단지에서 개최된다. 약 1만1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며, 마라톤 코스는 문화엑스포 국가광장 앞 도로에서 보문로로 출발하여 코오호텔, 통일전, 인왕사거리, 대릉원, 교촌교, 오름을 거쳐 금성로로 진입하여, 서라벌 문화회관, 경주여고정문, 황성대교, 계림고교, 시립도서관, 경주역, 인왕사거리, 분황사, 숲머리마을, 콩코드호텔, 경주월드를 지나 문화엑스포 국가광장 앞에서 끝나는 금년에 새로 지정된 국제공인코스이다.
경주문화원 정기총회 및 민속놀이
경주문화원(원장=권오찬)의 정기총회가 지난 6일 11시 경주문화원에서 이원식 경주시장을 비롯, 각급 기관장 등 회원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원식 경주시장의 율놀이 시연 등 민속놀이 행사를 가졌다.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에 1백여명 4천cc 혈액 헌혈
경주시가 시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5일 동헌청사 및 노동청사 앞 광장에서 실시한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에 1백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석, 4천cc의 혈액을 헌혈했다. 참여자에게는 헌혈시 혈액형 및 간염, 간기능, 성병 등의 검사결과를 개별 통보해 준다.
99 한국전통주와 떡축제
경주시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세계로 열린 우리의 맛, 멋, 흥'을 주제로 하여 99 한국 전통주와 떡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우리 음식인 전통주와 떡을 매개로 하여, 수십종의 다양한 실물전시와 도구·자료전시와 함께 전국의 전통주와 떡 업체가 참여하여 관람객들에게 시음시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경주의 자매도시인 중국의 서인시, 일본의 나리시, 우사시, 이즈시정에서 우호단이 참가하여 중국·일본의 술과 떡을 선보인다.
또한 전통주와 떡의 제조과정을 보여주는 시연행사, 전통주와 떡이름 알아맞추기, 시민과 국내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떡매치기, 누룩더리기, 가래떡썰기, 코믹씨름 한마당, 민속놀이 등의 10종의 참여행사와 예루살렘 고대지도 사진전, 세계기면전시회, 경주산사지전 등 부대행사 및 인기연예인 축하공연, 팬싸인회, 한·일 연예인 그네타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남사당놀이보존회의 조선출타기공연과 진도씻김굿과 동국대학교원 북춤공연단이 참가하여 영호남 화합의 북산지공연과 중국서안시 민속공연단의 민속공연 등의 공연행사도 함께 열린다.

취업정보

- (주)성진건설
남 관리사무원, 경북 경주군구, 0561-773-9233
- 에덴조경
조경기술자, 경북 경주군구, 019-512-5330
- 경주버섯시장
여 기획사무원, 경북 경주군구, 0561-773-6237
- (주)TV홈마트
여 접수 및 안내사무원, 대구군구, 053-782-4711
- 세진개발
여 경리사무원, 경북 포항 군구, 0562-284-1350~5
- 동남초경공업사
남 생산관리원, 대구군구, 053-382-9222
- (주)두영
남 관리사무원, 대구군구, 053-585-4617
- (주)웅진
남 자재사무원, 경북 포항 군구, 0562-278-9000
- (주)모아플라스틱
남, 충무사무원, 경북 칠곡군구, 053-421-9304
- 상경물산 (주)대구역
남, 자재사무원, 대구군구, 053-421-9304
- 정우전자
남 충무사무원, 경북 김천 군구, 0547-436-7811
- (주)성진건설
남 관리사무원, 경북 경주 군구, 0561-773-9233
- (주)녹수공업
남 관리사무원, 대구군구, 053-615-4657~9
- 황병길고시저널
남 고객관리사무원, 대구군구, 053-4222-0333
-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남 일반사무원, 경북 구미 군구, 0546-457-7900
- 아남공업사
남 관리사무원, 대구군구, 053-583-3364
- (주)대영상사 영천공장
남 경리사무원, 경북 영천 군구, 0563-336-2131
- (주)버덴파로스
여 비서, 대구군구, 053-653-5454
- 청풍건설
여 관리사무원, 경북 안동 군구, 011-503-0584
- (주)휴먼링크
여 관리사무원, 경북 구미시, 051-442-2112
- 신화공업사
여 자재사무원, 대구군구, 053-586-6741
- PCS016 북포항대리점
여 판매관리사무원, 경북포항 군구, 0562-282-0017
- 코리아스태프뱅크
여 일반사무원, 경북 안동 군구, 02-761-5941
- (주)지구개발
여 경리사무원, 경북 경주시, 0561-773-6504

동 약 장 터

- 가방 8개 : 300원부터 800원까지
- 구두 3켤레 : 500원, 600원
- 운동화 1켤레 : 600원
- 주발 2개 : set 3,500원
- 탁상용 휴지통 : 50원
- 커피잔 3set : 300원, 400원
- 전기 요구르트 발효기 : 3,000원
- 스키부츠 : 2,500원
- 등산화 1켤레 : 500원
- 스케이트화 : 1,000원

서울캠 여학생부처

소나기

학생식당



△름비나 불비나 어디로 갈까?
 △여자는 왜 밥을 조금 주는 겁니까?
 △남자도 조금 줘나.
 △반찬이 너무 적고 아예 위주에서 탈피를!
 △도대체 식당 줄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 겁니까?
 △있던걸 없애는 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는(동국관) 늘 굶고 있다. 오늘도 한끼도 못먹었다.
 △밥먹는 것이 힘든 학교. 효율적인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식당은 위생적이고 맛있으면 되지. 새 건물일 필요없다. 학생들의 이동이 쉬운 곳을 선택해주길!
 △체육복을, 어묵볶음 등등. 말만 거창하지 고기나 어묵은 어딴 겁니까? 아재만 동등.
 △판 학교 애들이 우릴 보고 웃을거다. 동대애들은 밥만 먹고 사느냐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도서관이다.
 △우동 시켜놓고 자리 찾다가 다 붙어터졌다. 시정타인지 전정타인지, 참.
 △년 우동이라도 먹었지. 난 굶었어.
 △하지만 1천3백원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은 많이 없죠.
 △때만두국을 먹기 위해서는 아우성을 쳐야 한다.
 △매점이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다.
 △름비나 2층 계단에 발이 쑥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 정말 위험하다.
 △식당에 왜 불고 연구소?
 △진흥관 식당이 학생회관 도서관보다 낫다. 진흥관을 넓혀달라.
 △도서관 식당은 바뀐 학생회관. 식당보다는 쫌 ~ ~ 금 낫다. 학생회관! 그게 뭐야.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식당에선 '밥'이 우선이지. 식당인테리어가 우선이 아닙니다. 총학생회 "쾌거"라 부를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학생회관 식당 바뀌기전에 학생회관 식당 갔고 요즘은 도서관 식당으로 간다.
 △왜??? 불나물은 반찬으로 나오지 않는거야? 냉이 속 얼마나 많은데...
 △학교식당! 이래로 두고볼 순 없지 않은가.
 △밥을 먹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뤄야 한다. 새치기를 비롯한 피터지는 생존경쟁! 반찬집게 빨리잡기, 깨끗하고 이쁜자리 순간포착 착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싸움들... 흑흑흑.
 △근데 학교식당 아줌마들 웃기라 조리사 웃값은 얼마가요.
 △총학생회의 수고는 잘 압니다만... 계속적인 투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학생회관 식당 난 안간다. 세상에... 단무지를 반찬으로 먹으라고 주다니. 이럴수가! 우리엄마가 알면 진짜 난리난다.
 △맛이 우리가 무 먹으러 식당 찾는 건 아니지.
 △원효관에도 학교식당을 만들어 달라.

다향관 학생식당 차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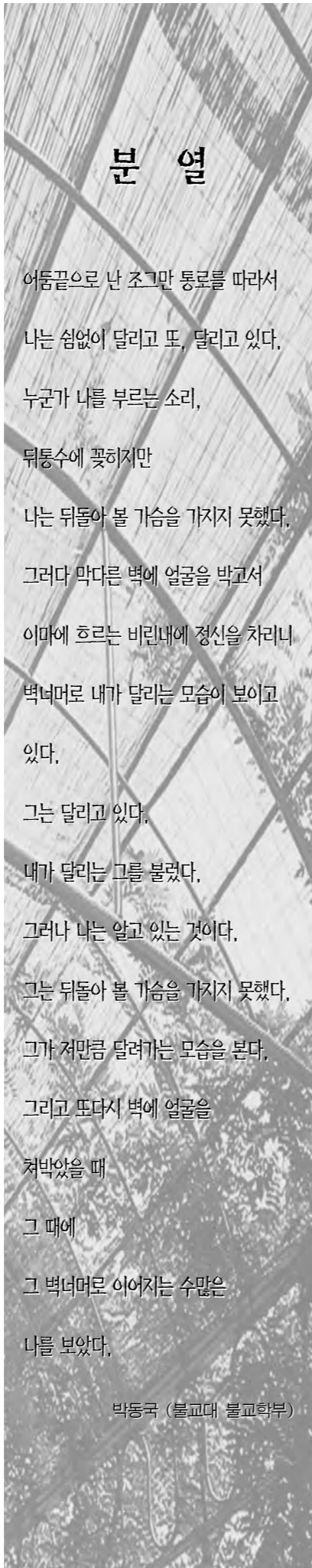
월	오징어까스(1300) 후랑크아채볶음(1300)
화	탕수육백반(1500) 회덮밥(1300)
수	오징어무침(1300) 소고기영양탕(1300)
목	불고기비빔밥(1500) 마파밥(1300)
금	소고기볶음밥(1300) 장국밥(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계맛살판고기(1500) 배추숙대국(1300) 후랑크볶음밥(1300) 계맛살판고기(1500)
화	돈까스(1300) 민두육개장(1300)
수	일매운탕(1500) 돈까스(1300) 떡갈비찜(1500) 꼬치어묵국(1300)
목	김치찌개(1300) 떡갈비찜(1500)
금	후라이드치킨(1500) 영지탕(1300) 홍합살무국(1300) 후라이드치킨(1500) 모듬볶음밥(1300) 열무비빔밥(1300) 콩나물국(1300) 열무비빔밥(1300)

(단위:원)



분열

어둠끝으로 난 조그만 통로를 따라서
 나는 심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
 뒤통수에 꽃이지만
 나는 뒤돌아 볼 가슴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다 막다른 벽에 얼굴을 박고서
 이마에 흐르는 비린내에 정신을 차리니
 벽너머로 내가 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는 달리고 있다.
 내가 달리는 그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뒤돌아 볼 가슴을 가지지 못했다.
 그가 저만큼 달러가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또다시 벽에 얼굴을
 쳐박았을 때
 그 때에
 그 벽너머로 이어지는 수많은
 나를 보았다.
 박동국 (불교대 불교학부)

참사람봉사활동, '나를 키우는 일'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경험 쌓길

대학시절에 하고 싶은 몇가지가 있었다.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로 임시준비 외의 모든 것은 뒤로한 채, 마음 속으로 '대학에만 가면...' 하며 생각해왔던 것들. 그 중에는 미팅이나 소개팅을 해보는 것, 한변쯤은 그래도 진리탐구에 몸바쳤다는(?) 증거로 장학금을 타보는 것, 조금 멀리 배낭여행을 해보는 것, 아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쳐 보는 것 등이 있었다.
 3학년날 마친 지금, 난 많은 경험들을 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대부분 해보았다. 그렇지만 대학시절 꼭 하고 싶었던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학년만 높아졌고, 그리 쉽지는 않았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 학교 참사람봉사단을 통해 이번 겨울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난 '이대 성산종합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어린이들의 학습지도를 하게 되었다. 혜진이와 별남이. 올 방학동안

나와 함께 했던 두 아이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날이었다. "선생님 드리려고 세뱃돈 받은 것으로 이거 샀어요"라며 내미는 뜻밖의 선물과 편지. '저는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못할거예요'라는 구절에서 '나도 이 아이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져움을 느꼈다. "선생님, 계속 오시면 안돼요?"하고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정이 들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어진 시간동안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생각과 관심에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었다.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으며,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 이것은 분명 나의 내적 성장에 커다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은성 (공과대 컴퓨터공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학점평가 합리적 시행을

행정학 전공 학생으로 교직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학기의 교직강좌는 '사회교육론'으로, 지난 학기까지 전공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수하던 '교육학' 영역이 아닌, '전공' 영역에 속하는 강좌이다. 수강인원은 같은 '일반사회' 전공인 행정학 전공과 경제학 전공 두 학과를 합쳐 모두 16명이다.
 현재는 이 학생들의 평가에 있다. 현재 본교 학생들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등급별로 그 비율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교직과정에 이를 적용하기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B학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교직과정을 밟는 학생들은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우수한 학생끼리의 상대평가, 더구나 그 성적여하에 따라 애써 교직과정을 다 이수하고도 자격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경쟁은 타 강좌보다 훨씬 치열하다. 특히, 이번 '사회교육론' 처럼 일반 교육학이 아닌 전공강좌라 수강인원이 소수인 경우 상대평가를 적용하기

엔 무리가 있다. 현행 규정은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절대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꼼꼼없이 상대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여서, 16명 중 반수 이상이 C이하를 받아야 하고, 이는 장학금 수혜·자격증 취득 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실력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상대평가의 적용으로 엄청난 학점격차가 나게되고, 이로 인해 자격증 취득에까지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비합리적인 일이다. 게다가 정기시험은 그 본인의 기능인 실력평가가 아닌, 떨어뜨리기 위한 평가로 전락할 수 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상대평가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교직 강좌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교직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교직에 한해서 상대평가를 제외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교직강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면, 최소한 전공강좌에 한해 적용을 제외시키거나 절대평가 제한인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희은 (법정대학 행정학전공)

모니터링

1266호 동대신문을 읽고...

여성해방·노동관련 기사

균형잡힌 객관적 보도 돋보여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이 있다.
 근래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약사 및 병원의 불공정거래관행의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사회적 계층간의 위화감을 이용하여 언론이 자기 입맛대로 사회분위기를 조종할 수 있음을 과시하거나 언론에 비판적인 계층에 대해서는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약값폭리에 관한 보도를 살펴 보면, 약은 다른 상품과 달리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의사 약사는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상인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교육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이다. 따라서 폭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들이 전

문지식을 축적하기까지 들어간 비용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전문지식인에 대한 사회적 대접이 소홀함을 넘어 범죄인 취급을 할 경우 전체 사회에 돌아오는 결과는 함람기달의 의료 및 사법적 서비스일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전체에게 돌아온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언론에게는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하나인 "쌍방에게 들어라"는 원칙이 중요하고, 사회제반에 미칠 영향도 평가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가 특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동대신문 제1266호를 보면 여성해방에 관한 기사나 노동관계에 관한 기사들은 래더컬한 주제에 관한 것이어서 편향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이 아주 돋보인다.
 우성기(법정대 법학과 교수)

신문 발행 지연사유를 알고싶다

3월 8일자(월요일) 동대신문이 학내에 배포된 것은 3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가 넘어가면서였다. 본교를 십년동안 다니면서 학교당국의 감압으로 배포가 늦었던 적은 있었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한 정파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에 대한 조지로 신문을 회수했던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동대신문사는 신문의 주인이 동국대학교의 전 구성원이며 그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기사에 대한 비판도 전 구성원의 몫이며 기사가 학내에 문제화될 때는 공청회까지 여는 당당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번 동대신문의 발행지연은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몇차례에 걸쳐 신문사로 전화를 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동대신문사는 동대신문이 전 동국인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정보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혹시 '하루 늦은 걸 가지고...'라며 자위를 하고 있다면 동대신문은 휴지탄도 못한 신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하루 늦게 배포된 동대신문의 톱기사는 그야말로 언론이 권력에 이용당하던 시대의 제목과 기사내용을 다르게 봤었다던 당시 기자의 말을 생각나게 했다. 1면 톱기사의 제목은 "상륙된 개관, 학내 복지 '달라진다'"로 했다 여기서 달라진다는 말에 따옴표까지 쳐서 강조한 걸 보면 발전한다는 쪽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편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동대신문사의 치부로 감춰져야할 문제가 아니다. 다시한번 이번 동대신문의 발행지연과 관련한 동대신문사의 성의 있는 사과와 경위 설명을 바라며 그것은 동국인 전체가 알 권리가 있다. 심재평(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수학교육과 97 우람이의 생일을 마니 축하해주세요.
 △전직 왕언니! 상숙아, 생일 정말 축하한다. 잘 살아보자.

알립니다

△삼스철학회에서 '새내기'를 위한 교양강좌'를 합니다. 많이많이 참여 부탁해요.
 △동개개 봉사동아리 '길'에서 새내기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학생회관 옥외지하 첫 번째방 △총학생회 선거를 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그대! 아직도 동아리탐에 고민하는가! 여기 최고의 동아리 아마추어 농구회가

기다린다.
 △선무부 신입부원 모집.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세요.
 △국어교육과 노래패 '알라성'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http://my.netian.com/~tiger05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아. 새터 공연준비로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선배97 △영문과 풍물패 '난장' 소개모임 준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짱! 풍물, 파이팅!
 △환상 지켜보는 선배가 △선무부 개강총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학교 화장실은 남성인격을 유린하고 있다. 다 보이니까 가려달라!!
 △야총 울통과 '총총' 모두들 사랑해요.
 △형식이야 다음주 목요일 육돌정에서 '삼계탕' 산다.



△야장님! 야총의 모범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야총 △떠나다는 그말에 나 물어버린거야! 유학 잘 다녀와!
 △야총 넋 △야미추어 농구회 신입생 모두 환영해요.
 △17기 △신분이 왜 바로 안나와요? 신문 보고 싶어요!
 △R.O.T.C 39기 사회과 후배들아! 문무를 겸비한 멋진 장교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사랑한다.
 △저의 역사와 소중한 사진이 담긴 다이어리, 곧 제 본인의 행방을 알고 계신분 연락주세요.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015-8495-5812

은방글

축하합니다

△야장님! 야총의 모범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야총 넋 △야미추어 농구회 신입생 모두 환영해요.
 △17기 △신분이 왜 바로 안나와요? 신문 보고 싶어요!
 △R.O.T.C 39기 사회과 후배들아! 문무를 겸비한 멋진 장교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사랑한다.
 △저의 역사와 소중한 사진이 담긴 다이어리, 곧 제 본인의 행방을 알고 계신분 연락주세요.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015-8495-5812

니아~
 △경봉이와 주현이의 백일을 축하합니다.
 △야총 넋 △야미추어 농구회 신입생 모두 환영해요.
 △17기 △신분이 왜 바로 안나와요? 신문 보고 싶어요!
 △R.O.T.C 39기 사회과 후배들아! 문무를 겸비한 멋진 장교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사랑한다.
 △저의 역사와 소중한 사진이 담긴 다이어리, 곧 제 본인의 행방을 알고 계신분 연락주세요.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015-8495-5812

수고하셨습니다

△야장님! 야총의 모범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야총 넋 △야미추어 농구회 신입생 모두 환영해요.
 △17기 △신분이 왜 바로 안나와요? 신문 보고 싶어요!
 △R.O.T.C 39기 사회과 후배들아! 문무를 겸비한 멋진 장교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사랑한다.
 △저의 역사와 소중한 사진이 담긴 다이어리, 곧 제 본인의 행방을 알고 계신분 연락주세요.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015-8495-5812

알립니다
 △동대신문사에서 새내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새롭게 펼치고 싶다면 언제든지 학생회관 2층 본사를 찾아주세요.
 △학이텔 동국대 통신동호회 dgu에서 99 학번을 모집합니다.
 △서울과 경주를 넘나드는 또 하나의 사 이버퍼포스~
 △hitel에서 go dgu하세요.
 △사이비시사-

그리고...

△불휘 18기 이상봉 이번엔 진짜 군대 갑니다.
 △김승진 군대갑니다. 군인아저씨께 편지 한통씩 합시다.
 △법정학부 중 1인 △박씨. 너 나 한번만 더 이마담이라고 부르면 주겨.
 △형수라고 불러줘.
 △석정의 옛 아하-

기획시리즈-사상의학

- 1. 태양인 · 태음인
- 2. 소양인 · 소음인

체질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
가는 현 시점에서 본지는 사상의학을
기획으로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 1백여년전 이제마 선생이 주창한 사상의학이란

우주창조의 원리가 살아 숨쉰다

“내가 죽고 1백년뒤에는 사상의학이 널리 쓰이게 될 것이다”

소음인 조선시대 선비형

소음인은 신대비소(腎大脾小)한 체질로 신기능은 왕성하지만 비위기능은 약한 편이다. 그래서 소음인은 신기능 즉 비노생식기능은 강하고 소화기능은 약한 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량한 냉기가 많고 열기가 적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이 체질은 기혈이 허하고 냉성의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기혈이라고 함은 활동력 생체에너지 및 체액에 대한 포괄적 의미이다. 이러한 것이 비위에서 생성되는데 비위가 약하므로 기혈이 허해지고 이것이 허해지므로 냉성화된 다. 체형상 비위부위인 어깨 및 흉곽이 약해 보이고 얼굴이 가늘면서 역삼각형이고 영덩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아랫배가 튀어 나온 경우가 있다. 누굴이 명치부에서 예각으로 만나고 상복부가 약하고 여기에 주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체질은 비위기능이 약해서 음식도 많이 먹으려 하지 않으며 소화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름에 찬 음식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고 설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쉽게 피로하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 후 어지럼증이 잘 생기고 손발이 차거나 겨울에 코가 시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 건강하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같은 설사를 하면 병이 심해지는 것이다. 잘 생기는 질환은 역시 소화기계가 약해서 위염 위하수 등 급만성 위장병 및 식욕부진이 잘 생기고 기혈이 약하고 냉기가 많으므로 주하병(더위타는 병) 외 한병(추위타는 병) 동상 등도 잘 걸리며 우울증 등 신경질환도 잘 걸린다. 대체로 허약하여 병을 자주 앓는 편이다.

닭 · 노루 · 염소고기와 굴 · 대추 섭취해야

소음인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육류는 닭고기와 노루고기, 개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등이며 생선으로는 담란한 명태, 도미, 조기 등이 좋으며 과일로는 소화기 기능을 도와 주는 굴, 대추 등이 좋다. 채소로는 해독을 시켜주고 율체를 풀어주는 들깨잎 냉기를 몰아 내는 마늘, 생강, 고추, 겨자, 후추 등이 좋

고 곡류로는 찹쌀이 좋다. 음료로는 인삼차, 쌍화차, 풀차, 생강차 등이 좋으며 빙과류, 날음식, 냉면, 찜외, 수박, 밀가루음식(라면), 생맥주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식은 기본적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이 체질의 경우 땀을 많이 흘리게 하는 운동은 오히려 기력을 상하게 하므로 너무 심한 운동보다는 가벼우면서 지속적인 운동 예를 들면 산책 가벼운 조깅, 맨손체조 등이 유용하다.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기질적으로 소음인은 유순하여 사람을 잘 모으고 침착하고 세심하여 사람을 잘 조직하고 사색을 좋아 하는 선비형이라 할 수 있다. 생각이 치밀하고 계획을 잘 수립하여 일을 차근차근 잘 처리하는 편이다.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이고 여성적이기 때문에 적극성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약하여 생각이 많이 하나 일을 쉽게 착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 세심함이 지나쳐 소심하거나 불안정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많다.

그래서 침착하고 세심한 장점을 잘 살려가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마음은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자신에게 유용하다. 이런 동료는 매너도 좋고 겸손한 듯 하지만 질투나 시기심이 많으므로 너무 잘난 척하거나 그 사람의 비위를 거슬릴 것 같은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정밀함이 요구되는 은행원 · 사무원

직업이 바람직

적당한 직업으로는 세심한 관찰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사무원 은행원 통계원 번역가 기획부서 등이 좋으며 변화가 심하지 않는 연구원 조카가 종교가 교원 등도 적합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또 꼼꼼함과 인내력이 필요한 식품점 잡화점 양장점 보수센터 등도 적합하다. 그러나 사교성을 요구하는 외관원 직업 군인 섭외업무 담당자 취재기자 등은 적합하지 않다. 또 육체노동을 많이 요구하는 현장근로자도 주의깊게 선택해야 한다.

소양인 일본무사형

소양인은 비대신소(脾大腎小)한 체질로 비위기능은 왕성하지만 신기능은 약한 편이다. 한의학에서 비위라 함은 현대의학적으로는 대체로 소화기계 기능을 의미하며 신이란 비뇨기 및 생식기계의 기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양인은 소화기능은 강하고 생식기능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면에서 이해해보면, 비의 열기(熱氣)는 많고 신의 한량기(寒凉氣)는 적어 몸에 화기는 많고 진액(물기)은 적어지는 체질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에 비유하면 사막과 같이 물기는 없어 건조하고 열기만 가득한 형태이다. 체형상 비위를 나타내는 흉곽 및 어깨가 발달되어 있고 신부위를 나타내는 허리 및 엉덩이는 빈약한 편이며 목은 가늘면서 길고 관골(관대뼈)도 발달되어 있으며 턱은 뾰족하며 다리는 가늘면서 약한 편이다. 적절할 지는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일본 무사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체질은 비위기능이 강하여 음식은 먹고 소화도 잘 시키지만 허리와 무릎이 약해서 자주 저리거나 아프고 아간에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으며 얼굴에 상기도 잘 된다. 대변을 잘 본다면 대체로 건강하고 변비와 함께 가슴이 화끈화끈 거리며 답답하면 병이 심해진 것이다. 잘 나타나는 증상은 화기(火氣)가 잘 동(動)하므로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편도선이 붓거나 아프고 더웠다 추웠다하며 얼굴에 여드름이나 붉은 발진이 잘 생기고 심하면 이명(귀에 소리가 나) 생기거나 눈이 캄캄해지며 당뇨병이나 고혈압도 잘 생길 수 있다. 또 신기능이 약해서 비뇨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요통 및 하지통도 잘 발생하며 여자의 경우 아이를 수월하게 낳지 못하는 편이다.

돼지 · 오리고기와 수박 · 참외 적합

소양인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육류는 냉하여 화기를 내려주는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이며 생선으로는 우기가 강한 가물치 북어류이고 과일로는 소변으로 열을 빼주는 수박 참외 및 딸기 등이 좋으며 채소로는 시원하고 싱싱한 오이 배추 가지 당근류이며 곡물로는 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보리 팥 녹두 등이다.



윤 중 화
한양대 대학 한의학과 교수



사상의학을 주창하는 이제마선생의 모습

선부른 지식으로 체질판단 “금물”

“전문의와의 정밀한 체질검사 밀바탕 폐야”

본지는 2차례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사상의학에 대해 4가지 체형별로 다루어 보았다.

사상의학이란 인간의 특징을 우주창조의 원리에 견주어 태양·태음·소양·소음의 네가지 체질로 구분하고 이 기준에

서 각각의 생리와 심성을 이해하는 한편, 질병 치료도 체질별로 따라 처방을 달리 하는 인간 중심적인 의술이다.

사상체질을 주창한 이제마선생이 유학 사상에 젖어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사상의학은 '민중'적이고, '대중'적인

생활의학이라는 점에서 사상체질의학을 발전 계승할점이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상의학을 리닉'이 생기는등 사상의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신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먹는 등 '사상의학 대중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상체질을 감별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한눈에 체질을 감별하는 것은 어려운일이며, 체질감별은 체형, 기질, 설문조사, 맥진 등을 통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이 글의 필자 또한 충고한다.

체질을 선별리 판단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몇년간 지속적으로 먹어 소화기 계통의 병을 얻어 투병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한다.

정확한 체질감별을 통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가려내고 맞는 음식을 섭취하면 질병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상의학은 인간중심의학이라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각 체질마다

잠재돼있는 성격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전시켜 육체와 정신의 고른 증진을 가져와야 진정한 예방의학이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의학은 체질을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선부른 지식으로 체질을 감별해 처방한다면 엄청난 독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사상의학을 접해야할 것이다.

박양우 기자

dg97430311@mail.dongguk.ac.kr

캠퍼스에 봄이 찾아오고 달하나 천강에

추위와 IMF라는 국가적인 재앙이 어울려 우울한 겨울을 보냈는데 어느덧 또 다시 봄은 찾아오고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캠퍼스는 어느덧 개학과 더불어 많은 제자들의 활기찬 발걸음과 봄의 향기가 나뭇거리고 있다. 그리고 새내기들도 서툰 몸짓으로 캠퍼스의 도서관 등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강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기도 한다.

최근 국제화의 물결 속에 우리도 무언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느껴왔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의 대학 생활! 정보화사회에 살아갈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하고 싶다. 첫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일반불미만의 중진국시대에는 하나의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 능력 없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1만불이 넘는 선진국의 시대에는 한사람의 생산성이 한계에 이를 것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전문 지식과 능력이 없다면 정보화 시대에 도태될 것이다. 물론, 지고한 인격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리적인 인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 시스템 도구 사용에 노력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여러분들은 평생 컴퓨터와 살아갈게 될 것이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한다면 정보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최소한 워드작업이나 통계처리작업 그리고 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검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공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 시스템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셋째, 요즈음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해결하려는 능력이 부족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 멀리만 느껴졌던 미국이나 유럽들도 이제는 통신망을 통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옆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하지 못하면 파급효과의 범위는 더욱 커

질 것이다. 우리는 많은 관련서적과 잡지 등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실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요구한다. 성실성과 추진력은 우리 선조들이 강조한 만고의 진리이며 덕목이다.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의사 결정을 내려야할 때가 있다. 한번 의사 결정을 내리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라 것이다. 약속이나 결정을 내리고 취소하는 일이 많다면 그 사람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될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살아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많은 지식 그리고 정보화 도구 사용방법을 익혀 보람된 캠퍼스 생활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김 의 창 상경대 정보산업학과

신작안내

검은 페를 가진 사람들



태백산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의 진폐증 예방사업으로 제작된 비디오.

진폐환자들의 애처로운 삶과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직업병의 심각성과 예방활동의 중요성, 정부

당국의 대책마련에 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작품이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제작

아직도 그곳엔 희망이 있더라



정운 스님의 첫 번째 산문집 '사람의 향기' 이후로 지면에 발표된 글을 모은 산문집.

가까운 이웃과의 진솔하고 정겨운 인연이야기와 세상의

일원으로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일구어나가야하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이책의 수익금은 모두 정운 스님이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불광 출판부. 정가 7천원

허난설현



남겼다.

그런 그녀의 도교 숭배사상과 규방의 고독, 구속에 대한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끝내 요절에 이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김신명숙은 글머리에서 억압과 굴종의 박제된 삶을 거부하다 고통 속에 스러져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바친다고 밝히고 있다.

금토출판사. 정가 7천원

역사의 격변치른 내면풍경 담겨

꽤 오래전 집안 아우이되 한 시인 홍일신 이 건네준 동인지 '시와 경계'를 읽다가 나는 신선한 충격에

빠졌다. 노동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상당한 수준의 시적 담론으로 제시한 작품 '시대의 꿈'을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을 신인 데뷔형식의 시작품들로 읽게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문화동네는 유신체제의 대응문학 논리였던 실천문학 단계를 지나 운동문학 국면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무렵까지의 이 땅의 운동논리는 대부분 문학이론에 얽혀 오고 있었다. 아직은 이념서적의 해금도, 본격적인 사회과학세대 등장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전야같은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전위처럼 운동 논리의 앞을 '창작과 비평'이나 '실천문학' 등의 잡지를 중심으로 문학이론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운동문학에서 계급성이 제시되면서 노동문학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일었다. 그것도 노동문학의 담당층이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갑론을박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어차피 기성인 소시민의식의 작가 시인들은 노동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고 그들의 노동현실인식 역시 피상적이고 천박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현실을 올바르게 담론화할 수 있

여일하게 미래·진보 전망 삶, 사랑의 과정으로 인식

이나 작가들로부터는 그 한계 때문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같은 형제 속에서 직업 노동자의 생동하는 목소리가 담긴 시를 읽는다는 것은 가치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충격은 73년 신경림의 시집 '농부'가 세상에 던진 충격 못지 않은 것이었다. 이른바 우리 시문학에서의 노동시의 출현은 시인 박노해의 등장과 함께 비롯된 것이었다.

그 이후로 시인 박노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삶의 곡절과 역사의 격변을 치루었다. 그리고 이번 '창작과 비평' 봄호에 시 '내가 걷는 이유'를 비롯한 십여편을 선보임으로써 그의 최근 내면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내면 풍경에는 두가지 색조가 뚜렷하게 물들어 있다. 하나는 짙게 붉은색이 속성된 말과 말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는 미래와 진보에 대한 여일한 전망이다. 이를테면 '나는 지금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앞에 서 있는 것이다/나는 지금 새로운 미래 앞에 서 있는 것이다/나는 지금 전혀 새로운 진보 앞에 서 있는 것이다'('살아온 시간들이 떨린다' 중)와 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다.

물론 이번 작품들 속에는 이 새 세계가

는 것은 역시 생산현장의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는 당위론이 그 래서 제기되었다. 한낱 지식분자에 불과한 기성시인

아름다운 성공

사랑의 크기를 넘어선 성공이라서
그만큼 시간 따라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박 노 해

능력을 키워가지 않는 사랑이라서
그만큼 시간 따라 망상해지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지만
우리의 무능은 우리의 죄일 수 있다

사랑은 치열한 것이다

사랑만큼의 식욕을
사랑만큼의 투혼을

사랑을 하기 위한 힘
순수한 힘일!

과연 어떤 공간인가 구체적으로 언술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도 무관치 않은 일일 테다. 숙명처럼 유투포이만을 꿈꾸는 것이 시인이자면, 그 꿈이 어떤 품목들을 내장한 것인지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을 터이다. 단언할 수는 없되 이같은 진보에 대한 믿음은 지난 날 사회 역사적 상상력을 근간으로 삼던 태도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그의 사랑담론이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지만/ 우리

의 무능은 우리의 죄일 수 있다'('아름다운 성공' 중)라는 언술에서 보듯 그의 사랑은 삶의 알맹이나 본질과 같은 것이다. 더욱이 삶을 목적화한성만이 아닌 사랑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데에 그 담론의 무게 중심이 실려 있어 주목되고 있다. 과연 그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그가 본격적으로 선보일 시 작품들을 기대하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홍 신 신 문과대 국문학부 교수

731부대 역사체험전을 다녀와서

인권유린·만행의 현장...일제고발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캄캄한 방안에 산체로 해부되고 있는 실험용 인간!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 수십년 전 731부대가 옮겨져 왔다. 바로 '숨겨진 마루타의 비밀, 731부대 역사체험전'이 그것이다. 우리민족을 잔악한 생체 실험대상으로 삼았던 일본을 고발하고, 처



참했던 당시를 재현한 이 역사체험전은 3월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3월은 삼일절때문에 고개속였던 반일감정이 싹트는 달이기도 하다. 더욱이 요즘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반일 감정이 한층 고조돼 있기 때문이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위치한 고문실은 일제의 잔혹함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일제의 잔혹함은 산모실험과 동상 실험, 생체해부로 드러난다. 알몸인체 나무막대기에 묶여 전시돼 있는 고통의 처절함이 배어있는 표정의 마네킹,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산모에게 약품과 세균을 투여하는 그림 등은 미처 전시물의 설명을 읽기도 전에 당시의 끔찍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치밀게 한다. 그뿐만 아니다. 이렇게 실험의 대상

이 된 마루타는 의식이 있는 체로 수술대에 올려지고 마취 뱀, 토끼의 표본처럼 연구실 한 귀퉁이에 보관되는 것이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본은 세계인류 공영이라는 명분하에 갖가지 잔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실험을 한 것이다.

이같은 만행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후 미국에 실험자료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수십년간 역사 속에 묻혀왔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이들의 만행은 마루타에 대한 생체 실험에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밝혀져 더욱더 역사적 '조명'을 받고 있다.

특별한 역사교육의 장이 될 이번 역사체험전은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된다. (인) yangkang@cakra.dongguk.ac.kr

매체비평

-뮤직비디오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바뀌지 이미 오래다. 그래서 가요가 ‘뜨기’ 위한 필수조건 하나가 바로 뮤직비디오인 것이다.”



영화같은 뮤직비디오,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은 '보는 음악'을 확실하게 추구했다.

어린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바람둥이가 돼버린 남자주인공과 죽은 옛 애인을 잊지 못하는 여자주인공을

축으로 남녀간의 만남과 이별을 내용으로 한 영상물이 있다. 총 26분 분량이며 1.2부로 나뉜 이것은 바로 신인가수 정재욱의 데뷔곡 '어리석은 이별'의 뮤직비디오 시놉시스이다. 최진실, 최수종 등과 같은 톱스타가 대거 참여하고, 음악과 대사의 비율이 절반 가량씩 차지할 예정이니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차라리 뮤직드라마에 가깝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히트가요가 갖춰야 할 것은 청취자의 귀를 확 잡아갈 수 있는 가사,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가사, 가수의 매력적인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바뀌지 이미 오래다. 그래서 가요가 '뜨기' 위한 필수조건 하나가 바로 뮤직비디오인 것이다.

이러한 뮤직비디오를 활용, 가장 성공한 사례로 조성모를 들 수 있다. 'To Heaven' '불멸의 사랑'의 영화같은 화면과 스토리로 대중들을 사로잡았고 대중들은 기어이 가사와 가수까지도 '애용'했다. 이같은 뮤직비디오 덕분에 조성모는 소위 '잘 나가'는 가수가 된 것이다. 요절한 가수 김성재나 서지원, 새 앨범을 발표하고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서태지, 사이버 가수 아담 등이 뮤직비디오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마이클 잭슨은 제 50회 칸영화제에서 무려 35분 동안 뮤직비디오 '고스트'를 특별상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기몰이에 단단히 한 몫하고 있는 뮤직비디오의 역사는 앞서 밝혔듯 불과 10년이 채 못된다.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뮤직비디오가 '뜨' 것은 다름아니라

케이블TV 보급 확산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케이블TV는 그야말로 뮤직비디오의 천국이다.

지난 95년에 개국한 이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의 인기는 수직상승을 하고 있다. 케이블TV 방송협회가 전체 프로그램의 시청률 순위를 매긴 결과 음악채널인 'm-net' (채널 27)와 'Km-TV' (채널 43)는 97년 6·7위에서 98년 3·4위로 경천 뛰어오른 것도 프로그램 관계자가 밝혔듯 인기 높은 뮤직비디오를 다양하게 소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세대들은 영상에 길들여져 있다. 그들은 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상을 보고 자랐으며 그것에 대한 이해나 수용이 빠르다. 그들의 다양한 욕

구를 채우기 위해 가요계 또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신세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귀' 뿐만 아니라 '눈'도 함께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가수의 얼굴만큼, 춤만큼 보여주던 단순한 형식의 뮤직비디오 이제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다. 노래방의 배경화면 같은 뮤직비디오는 더이상 '보는' 음악을 소화해낼 수 없다. 노래의 내용과 상관이 있든 없든 대중들을 울리고, 웃길 수 있는 스토리를 뮤직비디오에 녹여내야만 한다.

신세대들은 눈도 귀도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레코드점을 찾아가는 뮤직비디오의 '뮤직드라마'화는 점점더 확산될 전망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동국인, 영화판을 지킨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 유현목

현재 영화판은 동국인이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연출·제작·시나리오 집필은 물론이고, 그 장르도 다양한 상업영화·독립영화 등 거칠 것이 없다. 본지는 영화판에서 중흥무진 활약하고 있는 동국인들을 살펴보고자.

영화판을 빛낸 동국인

한석규



1964년생. 연영 83입학·89졸 '닥터봉' (1996) '은행나무 침대' (1996) '초록물고기' '넝쿨' '접속' (1997) '8월의 크리스마스' (1998) '쉬리' (1999) 96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 97대중상 남우주연상, 97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외 다수

한석규란 나오면 든다. 그는 영화계의 흥행보장수표이다. '닥터봉'을 시작으로 연속 흥행안타는 기어이 '쉬리'에 이르러 장외흥행을 날리는 기염을 토해냈다. 충무로의 모든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가장 높은 개런티를 받는 한석규는 한국영화의 핵이다.

박신양



1968년생. 연영 86입학·대학원 연극영화과 석사과정 1학기 휴학. '유리' (1995) '뽀아중' (1996) '모델 선인장' '편지' (1997) '악숙' (1998) '화이트 밸렌타인' (1999) 98백상예술대상 인기상, 98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 99춘사영화제 남우주연상.

'한국의 드니라방'.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아 영화의 반 이상을 받쳐주고 나와 화제가 된 데뷔작 '유리'는 본교 연영과 동기인 감독 양운호와 호흡을 맞춘 작품. 그의 진지하고 탁월한 작품 해석이 그를 '한국영화의 뉴웨이브를 이끌 배우'에 선정되게 했다.

서병재



사회 90입학·94졸업 '영원한 제국' (1994) '개같은 날의 오후' (1996) '러브레터' (1997) '내 마음의 풍금' (1999) 조연출 요즘도 사회학과 신인생 환영회에 참석해 주장을 뽐낸다고. 현재 '내 마음의 풍금' 후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연출·시나리오 분야는 이처럼 인문·사회분야 출신 동문이 많다고 한다.

“유현목 감독의 한국영화에 대한 공헌을 마치 각인이라도 시키듯 지난 1일 유감독에게 3.1문화상이 수여됐다. 이번 수상은 예술적으로는 영화작가요, 학문적으로는 대학교수이며, 사회적으로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회원으로서 유감독이 지난 40여년 동안 문화계에 이룩한 커다란 업적을 기리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 영화계의 원로 유현목 감독은 동국의 자라지 않은 수 없다. 본교 국문과에서 수학한 뒤 40여편의 영화를 감독, 한국영화사에 굵은 획을 그은 그는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예교수로 각종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영화세계는 대략 3시기로 나뉜다. 어둡고 절망적인 사회를 그린 영화, '잃어버린 청춘' (1967) '오발탄' (1960) '임여인간' (1964) 등이 그 첫시기라 하면 신앙의 미학으로서 참된 종교의 의미를 추구한 '순교자' (1965) '종아' (1967) '사람의 아들' (1980) 이 그 두 번째 시기이다. 또한 그는 분단시대를 고찰하고 인간의 자유와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우기도 했으며 이 계열의 영화로서 '카인의 후예' (1968) '악몽' (1968) '나도 인간이 되련다' (1969) '불꽃' (1975) '잠마' (1979)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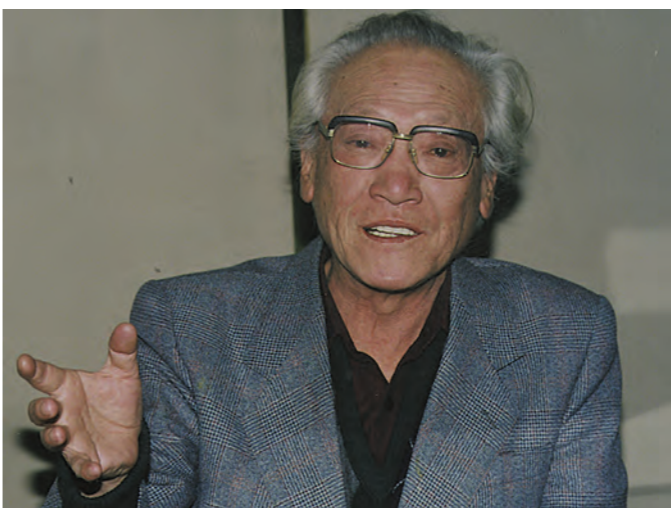
특히 유감독의 61년작 '오발탄'은 한국영화사

에서 최고작의 지위에 올려져 있다. 지난해 초 문화방송에서 영화평론가들에게 조사한 '20세기를 빛낸 한국영화' 1순위에 올랐고, 한겨레신문이 영화평론가 5명에게 의뢰해 작성한 '세계영화사 1백년의 영화 1백편'에 포함된 한국영화 3편 가운데 한편이었다.

실제로, 시대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한 리얼리즘영화로서 '오발탄'은 이후 40년의 한국영화에 여전히 넘지 못한 벽이다. 게다가 일정한 상업적 스타일을 강화해가는 한국영화는 '오발탄'의 지점으로 점점 먼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영화에 커다란 경종이 될 수 있다.

사진을 찍겠다는 기자의 말에 기쁨이 없는 백발을 수차례 매만지던 유현목 감독을 만난 곳은 극장의 시사회였다. 화면에는 한국영화 '정사'가 펼쳐져 있고, 그 어두운 곳에서도 영화를 꼼꼼히 살펴보는 감독의 눈이 '반짝' 빛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백상예술대상의 영화부분 심사위원을 맡은 것이다.

"현재 한국의 영화제작 기술은 크게 발달했어. 내가 영화 찍던 때랑 비교가 안되지. 안타까워.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영화를 할거야"



주요작품

- 1955 체녀작 '교처로'
- 1958 '인생차입' '이름다운 여인'
- 1959 '구름은 흘러도'
- 1960 '일찍찍' '오발탄'
- 1963 '김약국의 딸들' '푸른꿈은 빛나리'
- 1964 '임여인간' '내내 고백한다'
- 1965 '순교자' '푸른별 아래 잠들게 하라' '춘몽' '태양은 다시 뜬다'
- 1967 '한' '박치로 온 손님들' '종아(終夜)' '공처가 삼대'
- 1969 '수학여행' '여, 여, 여' '회전목마(미완성)'
- 1971 '문레기' 1975 '불꽃'
- 1978 '옛날 옛적 휘어어 휘어' '다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
- 1979 '잠마' 1980 '사람의 아들' 1995 '말미잘'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지하창작집단 '파적' 을 만나

비주류 이끌 복합 예술인 집단



서울단편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파적'은 단지 영화를 좋아할 뿐이다.

자칭 지하창작집단 '파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한다. '파적': 파전, 파트너가 있어야 적합하다. 파장, 집단 파적, 파괴적, 막기파, 오랑캐족... 이만큼 다양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파적'이라는 말에는 뜻이 없다는 것이다.

복합예술인 집단 파적은 지난해 독립예술제에 참가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제4회 서울단편영화제(1997)에서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라는 제목의 영화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화려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파적은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본교 출신이 4명이나 된다.

학부시절 '그리고 그림'의 동아리 활동을 한 김경주(무역88)씨가 파적의 대표이다. 단지 '영화가 좋아서 모였어요'라며 간단하게 파적의 결성동기를 밝히는 그는 동기 우관식(무역88)씨와 함께 '부작용전'을 열어 설치미술과 그림을 전시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하이텔 인포샵에서, 소설을 연재중인 기미란(농생88)씨, 본교 대학원 연극영화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조성재

씨도 '파적'의 일원이다.

독립영화에서 두각을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목적은 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이들의 창작과 표현의 방법중 하나가 단지 영화이며 가장 매력적인 장르라고. 그래서 파적은 복합 예술인들의 집합체인 것이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인사동 '보다' 갤러리에서 열린 '녹음방초 분기탕천'이라는 이름의 회화한 전시회가 그들의 '복합예술'적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들의 다양한 퍼포먼스, 단편영화상영, 설치미술은 관객들로 하여금 색다른 체험을 느끼게 한 것이다.

수유리에 있는 예술극장 '활인'에서 오는 28일까지 계속될 독립예술제 '미러리 오몽'에 파적은 27일 '파적의 밤'을 연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객과 호흡하게 될 이 자리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파적의 큰 바람이라고.

영화를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특색있는 모임 파적. 어쩌면 파적은 수년내에 한국의 비주류문화를 이끌지도 모른다.

(인) yangkiang@cakra.dongguk.ac.kr

자유인소식

학교 밖에서

그룹이 멈추던 곳에 물이 흐르더라.

각본 없이 공연당일 관객과 상황에 따라 매회 다른 내용으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이다. 초능력, 건강, 기공, 정신세계 등의 신비현상을 관객에게 직접 체험하게하는 교감 연극이다. '천기누설'의 작가 안중선이 직접 출연하여 초현실적 자아를 위한 열린 의식의 한 마당을 펼친다.



오는 4월 11일까지. 바탕골 예술관에서. 문의 761-0300

심청전

우리 고전을 세계화한 한국 최고의 창작발레. 88올림픽 문화예술축전 무용제 최우수 작품으로 평론가들에 의해 '해방이후 50년간 무용부문 베스트 10'에 선정된 작품이다. 유니버설 발레단 작품으로 예술감독은 올레그 비노그라도프가 맡고 있다.



오는 4월 9일까지.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문의 2204-1041

이규정전

천하무식에 무지몽매하고 솔타래와 노름질, 싸움질로 세상을 살아가는 낯뜨팸이 아이큐이야기. 주인공은 중국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토호지주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화적때에 부화뇌동하여 좀도둑으로 변하고 혁명세력에 불합쳐 자신이 왜 사형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 노신의 작품을 국립극단이 공연을 한다.



오는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문의 2274-3507

햇빛상자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 극복의 몸짓을 통해 우리들의 자화상을 반추해본다. 10년전 직장에서 나가기 위해 엄마가 아이를 가두었고, 아이는 갇힌채 불에 타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방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 딸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로서의 한 여인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오는 5월 2일까지. 소극장 오늘에서. 문의 765-4801

메아리

조국을 사랑한 죄

▲부스를 기다리다/ 다가서는 옆 사람이/ 결눈질로 경계하다/ 순대국밥을 먹다 막들어와/ 곁에 앉는 사람들을 일일이 의심하다/ 나는 못내 답답해져/ 아무리 울려다봐도 끝없는 하늘 향해/ 긴 한숨을 들어놓는다...보고픈데 목이 메어/ 편지 띄울 수 없는/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다 / 환장하게 좋아하면서/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

다가/ 나는 못내 심만해져/ 밝아도 내려앉지 않을 땅을/ 구르고 또 구른다...

▲현재 조계사에서 8개월째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에서 농성중인 96년도 본교 서울캠 총학생회장 유병문씨가 쓴 시집 '양수리에 서' 중 '수배일기' 내용의 일부이다. 3년여의 수배생활 중 밥을 먹으며 들어간 식당에서조차 열사함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었던 당시의 긴장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는 듯 하다.

▲현재 조계사에는 9명의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들이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권시절의 정치수배자는 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63명이 나 된다. 그러나 이들은 현정부 출범이후 몇 차례에 걸쳐 실시된 사면에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준법약서작성과 자진 출두

외에 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무늬만 '문민'이었던 김영삼 정권하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자신들의 청춘을 바쳤던 이들도. 또한 이들은 현 국민의 정부 탄생에도 일정 정도 기여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입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들이 지난

정권에서 '조국을 사랑한 죄'로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다면 현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이들이 다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다시 '조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조건없는 수배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곁에 앉아있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을수 있을만큼 자유로울 수 있게끔 말이다.

유철주 대학부장
cowso@cakra.dongguk.ac.kr